

사도행전 1 장

1. 사도행전의 일차 수신자는 데오빌로(데오:하나님, 빌로:필로스 즉 사랑)다. 그에게 먼저 써서 보낸 예수의 일생에 관한 글은 어느 성경인지 찾아보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지어보자.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쓴 복음서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순서는 눅, 행이 바람직하다)

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던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전15:5-7)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천국)다. 외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4:17)'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

3. 예수님의 제자들은 헛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 다녔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이라면 왕이 되기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물었는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6) 정말 골 때리는 제자들이다. 삼년이나 따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니... 10년 20년 믿었다는 우리는 어떨까?

4. 다음 구절에 틀린 곳이 있으면 고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라 → 되리라: 증인이 되고 말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측면보다 '되라'는 인간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이 있는 말이다. 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다.

너희는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5.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곳이다. 먼 옛날 하나님과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그 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희생이 따랐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굳이 예루살렘에서 주시려는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당부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령을 나눠주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다만 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눈길이 쏠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

6. 교묘하게 말을 비틀고 꾀아서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 백 명이 된다고 한다. 그들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가짜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어떤 인간도 재림 예수일 수 없다.

7.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때문이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맞다: 흔히 이렇게 설명한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까?

틀린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1:4). 그들의 기도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미리 작정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도 때문이란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을 갖추기를 기뻐하시니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낸 질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 앞에 서고 내 기도가 뒤따라가야 한다. 그럴 때 마치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주시는 것이다.

8. 새로운 사도의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와 함께 다닌 자

9. 사도를 세운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임무를 완수한 사람은 사실은 맛디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

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이다.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10. 몇 해 전에 다미 선교회가 온통 소동을 피운 적이 있다. 학교 다니던 학생은 자퇴를 하고,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사표를 내고, 집도 팔아치운 채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과거에는 외제 사이비가 많았는데 이제는 국산 사이비도 제법 위력을 떨친다. 앞으로도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시하셨다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사이비 기독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1:7)

11. 성경의 제일 앞의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 시편의 많은 글들은 다윗이 기록하였다. 적어도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셨으니(1:16)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딤후3:16)

12. 아겔다마란 말은 아람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였다. 이 말의 뜻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은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기록은 어느 언어로 되었을까? 당시 국제적 공용어는?

헬라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12) 안식일에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 거리 안에 들어 있었다는 말

지로(指路): 안내자가 된, 길을 가리켜 안내함

사도행전 2 장

1.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은밀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였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모양이었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행 8:17-18). 오늘날에는?

성령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내주(內住)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충만이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반복될 수 있으며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기의 이 모습은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을 뜻하고 오늘날에도 특별한 경우, 가령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보급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제자들의 방언 능력도 영속적인 은사는 아니었다.

2. 제자들이 하게 된 방언은 요즈음 우리가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는 달랐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해도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인들의 언어로 들리는 완전 자동 통역 방식이었다. 최소한 몇 개 국어로 들렸을까?

14개 국어.

3. 성령이 임하여 벌어진 놀라운 소동은 장차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날에는 얼마나 큰 소동과 감격이 일어날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무엇을 되찾은 현상인가?

본래 언어: 바벨에서 혼잡케 된 언어가 성령이 임하므로 다시 회복된 것임. 인간의 두뇌는 평생토록 5%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10%를 사용하게 되면 천재라고 불린다는데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100%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담이 수천, 수만이 넘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름을 붙여준 것만 보아도 증거가 되는 셈이다. 우리의 두뇌 사용량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을 즐거움으로 기다리자.

4.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다. 한 번 뼈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트집을 잡게 마련이다. 일부 유대인들의 짓이었지만 이런 뼈뺀 유대인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무엇이라고 비난하는가?

술에 취했다: 이런 술이라면 만날 취하겠다.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한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 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밖에.

5.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란 무식하고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며(2:7) 얼마 전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찢찢매던 그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다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삼 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을 체험하고 좋은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결과는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이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환상이나 이적을 체험했다고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자.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 열심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6. 자신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두 권은?

요엘, 시편

7.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을 전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되겠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이 계시가(복음) 전해질 것이다.

8. 말세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하기도 한다(요엘이 예언하던 시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에서 말세는 후자를 뜻한다.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보자.

전반부(17-18)는 초림과 관련, 후반부(19-21)는 재림과 관련된 것이다.

9. 베드로가 다윗의 글(25-28, 35)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세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1)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30), 2) 메시아는 부활한다(31), 3)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10.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마음에 찔리는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다윗의 입을 빌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5절의 '주'와 '네 주'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주: 하나님, 네 주: 예수님

11.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다. 초대교회에는 교제(떡을 떼며), 기도, 능력(기사와 표적), 찬양, 날마다 성장하는 감격이 있었다. 이런 감격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했을까?

말씀(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는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 말씀을 잃어버린 서구의 교회가 건물만 양상하게 남긴 채 사라져 버린 것을 보면서 말씀에 재쳐두고 다른 일에 열심을 보이는 현상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12.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가(37)?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면 성령을 휘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막 3:29) 예수를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인가? 성령을 휘방하는 죄란 회개를 촉구하는 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뜻이다.

13. 마르쿠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은 성경에서 그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1) 어디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가? 2) 또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1) **행 1:44-45:**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즉 사유재산 없이 공동생활을 함

2)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발적인 결과고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 없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사회다.

14. 베드로가 행한 긴 설교의 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무엇인가?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2) 예수는 구세주(메시아)이시다.

15. 전도에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도 전도에 열심을 품자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1) 교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2)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한 것은 누구인가?

1) 열심히 전도한 결과보다는 칭송받을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산 결과(44-47)

2) 주(主)께서

우리 자신의 노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려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먼저다.

오순절(五旬): 오십)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유월절 축제 기간 중 첫 이삭을 드린 날부터 7주 후에 거행되는 추수감사제로, 칠칠절 혹은 초실절(출 34:22), 맥추절(출 23:16)이라고도 함
제 삼시: 유대인들은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었다. 3시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한다.

사도행전 3 장

1.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좌판을 깔아놓고 찬송가나 복음송을 들고 있는 거지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 1) 동전 몇 푼 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피해간다.
- 2)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베푼다.
- 3) 하필이면 찬송가를 들어서 믿는다면 적선하라고 강요하는가 짜증이 난다.
- 4) 그저 불쌍하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적선한다.
- 5) 천국 갈려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6)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몇 푼 주고 간다.

2. 다음이 어떤 설교의 요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삶을 삽시다. 구걸하는 거지에게 푼돈이나 던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세우려는 시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란 뜻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너무 과도한 의욕이다. 적어도 복음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선교지로 떠나는 상태라면 기꺼이 아멘 해야 하고 그런 능력을 구해야 한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분명히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할 만큼 시급한 때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다.

3. 거지가 구걸했던 동전 몇 푼이 없어서 대신에 자기가 가진 다른 것을 주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

4. 동전 몇 푼 바라고 한 ‘한 마디’가 무엇으로 돌아왔는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짐: 친구 따라 멋도 모르고 밝은 교회 문턱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다름 바가 없다. 이 거지에게 이런 복이 굴러온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거지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5. 걸을 수 있게 된 앓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그 두 사람을 붙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는가?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졸지에 스타가 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김을 오히려 경계함 →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음: 모든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여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빌 1:20) 노력하자.

6.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 후를 비교해 보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했다. → 걷고 뛰고,
구걸 → 하나님을 찬미

7.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송에 ‘금과 은 나 없어도...’라는 것이 있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되어 있다. 은, 금의 순서가 왜 바뀔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런 순서로 말했을까?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을 것(중요하지 않으니 순서가 별 상관이 없다), 중요시하는 사람은 ‘금과 은’; 노예인 경우에는 발음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8. 앓은뱅이를 고쳤더니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감탄을 한다. 드디어 무지무지하게 많은 팬들이 생겼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베드로의 기분을 말해보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김을 오히려 경계함 →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음

9. 오래 전에 (70년대 초반에) 통일교가 한창 위세를 부릴 때 일간지 전면에 ‘누가 예수는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라는 제목으로 광고 공세를 퍼부은 적이 있다.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잘못이며 따라서 예수는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고 남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문예수가 왔다는 주장을 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한 구절이 바로 17절이다. 통일교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해보자.

18절: 그러나(역접),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의 죽음은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그 예정에 따라 죽으신 것이다. 예수의 사역은 죽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 필수지, 실패가 아니다. 애써 18절은 외면하고 17절만 인용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자.

10.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을 전부 찾아보자.

신18:15: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니라.

레23:29: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창22:18(12:3):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11.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구절 외에 또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가?

모든 선지자들은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

12.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_____를(을) 주시리라. 왜 2장과 3장이 다른가?

2장에서는 성령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 3장에서는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13. 본 장의 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앞은행이를 고친 것과 베드로의 설교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가? 왜?

베드로의 설교: 앞은행이를 고친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행위라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표적과 이적은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구원의 문앞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만 할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제 9시: 9+6=15 (즉 오후 3시,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즉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다.

미문(美門): 높이 23m, 너비18m 로 다른 문에 비해서 특별히 크고 웅장하였음

행각(行閣): 궁궐이나 사찰의 정당(正堂) 앞이나 좌우에 지은 장랑(長廊: 단채)

만유를 회복: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깨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이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사도행전 4 장

1.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새로 등장한 자는 누구이며 왜?

성전 말은 자: 제자들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는 실질적으로 사두개인들이었다. 정치적, 종교적 실권을 가진 자들은 거의 사두개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주관하는 종교적인 자들이었고.

2.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백성을 가르치는 것:** 자기들의 밥그릇 문제. 성전 내에서 남을 가르치는 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것이었다. 로마와 협력하며 각종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유, 불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2)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는 내용 자체도 싫었을 것, 자기들이 앞장서서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 더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내세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3.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는 틈을 많이 들이더니 제자들은 왜 대뜸 잡아들였는가? 잡아들이기가 쉬웠는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점 때문에 잡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 잡아두지 못한 것도 그래서 일 것이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이 그만큼 컸다는 뜻일 것: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다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을 것

4. 제자들을 잡아온 것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말은 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튿날 모인 자들은 관원, 장로, 서기관들이다.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말은 이 일에 앞장선 것이 이들이며 또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컸다는 뜻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서기관은 대체로 바리새인이다)

5. '날이 이미 저물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참고로 예수님의 재판은 거의 모든 요소가 불법적인 것이었다.

당시 랍비의 법에는 해가 지면 어떤 심문이나 재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심문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기만 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불법투성이인 것은 한 밤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확인된다.

6. 성경에는 그렇게 잘나고 멋진 인물들이 별로 없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에 주목해 보자. 결코 이렇게 잘났거나 멋진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 때니이까?' 이런 책망을 받던 인물들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1)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가?

담대함, 확신에 찬 어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함,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아니함, 능력 있는 설교, 야~ 말 잘한다.

2) 변화의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와는 다르다.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이므로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주어짐)

7. 반면에 관원들의 처사는 얼마나 궁색한가?

제자들의 주장과 한 일은 인정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어거지로 위협만 함: 하나님보다 기득권 유지에 더 급급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며, 율법을 수호한다는 율법 선생이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

8. 관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감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두려워한 것이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가?

백성(21):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할 때의 백성은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의 백성을 의미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신대로 일하지 않을 때의 백성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용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백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번째의 의미로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가령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인들의 눈치만 살핀

다고 생각해 보라. 가끔 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독선적으로 교회 일을 처리하는 목사들이 있고 하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또 교인들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목사도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목사인지 모른다.

9. 다가오는 위협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교회가 뻗어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말씀은?

가두었으나 ...남자의 수가 오 천이나 되었더라(3-4)

10.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말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술씩 더 뜨고 있다. 정말 미치겠네? 제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말이 되고 있다. 차례대로 정리해 보자.

1)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

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

3)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1.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설명해 보자.

우리 같으면 위협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오히려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

12. 빌라도와 헤롯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합동해서 하려고 하는 일(27-29)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란단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 하는가(27-28)?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으며 다만 예수를 거스를 뿐이다. 예수를 거스르고 하는 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열심히 계획을 짜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잠16:1).

13. 2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또 충만하다니?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다. 반복적이란 능력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뜻이다. 제자들이 평생토록 방언을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모습(바람, 불 → 진동)

14. 본문에 우리가 흔히 큰 소리로 하는 통성기도 혹은 합심기도가 있는가?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등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소위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뜻한다고 말하는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통성기도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뜨겁게 ‘아멘’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멋진 기도를 각자가 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성기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합심의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런 느낌이 많아서 하는 소리다. 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점, 억지로라도 소리를 크게 해야 합심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15. 다음 요지의 설교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진정한 신앙인은 소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이 옳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만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누가 그러라고 시킨 일도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고 싶지 않으면 생각도 말라.

16. 누구든지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헤쳐 나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내게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시31:15)’라는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이었다. 여기서 내 시대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물질적, 인간적, 영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다. 내 인생이 내 주변의 몇몇 힘 있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본문에도 이런 고백이 담긴 표현이 있다. 무엇인가?

대주재(大主宰, Sovereign Lord):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긴 표현이다. 따라서 세상 관원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초대교회가 그러했다.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은 이래서 태어난다.

17. 헤롯과 빌라도는 본래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했다(눅23:12).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마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왜?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26, 28)

18. 다음의 의미는?

건축자: 유대의 관원들 - 율법에 관한 전문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 - 예수

모퉁이 돌: 가장 요긴한 돌 - 부활하신 예수

19. 성격이 너무 유순한 사람은 남 보기에 그럴 듯한 업적을 남기기가 어렵다. 특히 베드로를 보면 성질이 급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의 수제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 그의 급한 성격, 달리 말하면 열정 탓이 아닐까? 사도 바울도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반면에 온순한 성격을 지녔던 인물들은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훌륭하게 도와주었다. 신약 시대에 어쩌면 바울보다 더 위대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즉,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인물이 조용하게 등장하고 있다. 누구인가?

바나바: 본명 요셉, 구브로의 레위인, 권면과 위로자

20. 본문에서 구약 인용을 몇 번 했을까?

2번 (시118:22, 시2:1-1) 혹은 3번 (사37:16-17: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침공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서 인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성전 맡은 자: 레위인 중에서 임명된 성전 수비대 대장,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아도 중요한 보직임
안나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

공회: 유대의 최고 관청인 산헤드린, 종교 도덕 정치문제까지 관장함

사도행전 5 장

1.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잘한 일은?

땅을 팔아 절반이나 바쳤다. 부부는 일심동체였다.

2.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인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3), 하나님께 거짓말(4), 주의 영을 시험함(9) 종합하면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대상과 때를 잘못 택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그 때에 직접 하나님을 상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비슷한 예로 야간을 들 수 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최초로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는 전투였다. 그런 때의 사소한 잘못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 신자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참으로 위험한 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바로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뿔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막9:42)' 예수님께서 공언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새 신자나 어린 신자가 보이거든 그만 두라.

3.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4장 끝 부분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과 바나바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치니까 자기들도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돈은 아깝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선 單獨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을 의식한 것 때문에 행하는 행위는 하나 하나 바뀌어 가야 한다. 헌금, 기도, 전도... 왜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가?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런 방향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이외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 평가, 점검되는 것은 하나님께 쓴 나의 연애편지를 남이 훑쳐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헌금봉투에 이름과 액수가 기록되어야 하고 어느 예배에 얼마나 출석하고 있으며 몇 시간동안 기도했음이 보고되어야 하는가?

4. 아나니아 부부가 비록 죽을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땅값의 절반(?)이라도 번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땅 값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땅 값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땅 값이라는 항목이 없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나안 전투의 야간, 대홍교회의 ○○○,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교회 안에서는 죽어도 싸우지 말자. 편을 가르지도 말자. 친구를 미워하지도 말자. 죽을 각오라면 몰라도...

5.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니 육신이 약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 조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우리를 따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칭찬은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어느 구절처럼?

13: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나 칭송하더라.

6. 초대교회의 성장이 눈에 보인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인원은 120명이었다(행1:15). 성령이 충만하여 행한 첫 설교에 3,000명이 더하더니(행2:41) 공회에 잡힐 때는 믿는 무리가 약 5,000이나 되었다(행4:4).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었으며 무슨 뜻인가?

큰 무리(행5:14): 너무 많아서 계산 불능

7. 베드로의 위대한 변신이다. 거짓말 하던 사람이 즉사하는 것이나 수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그 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정도라면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성경은 베드로를 위인화하지 않았다. 베드로를 베일에 싸인 신비한 인물로 만들지 않았음을 설명해 보자.

이렇게 위대한 경지에 다다른 베드로의 이야기를 20~30년 뒤에 쓰면서(4복음서) 과거의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한 것을 보아서

8. 26절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번역상의 문제일 뿐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마5:18)의 위배는 아니니까 문맥에 어울리도록 조금만 고쳐보자.

'성전 말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들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 성전 말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데려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들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9.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혐오감이 아주 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을 세 가지 찾아보자.

이 이름, 너희 교, 이 사람(28): 예수니, 복음이니 하는 말은 입에 담기도 싫다는 뜻이다. 그래서 간

접적인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사도들의 답변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복음의 핵심이 거침 없이 나오는 것이 아주 대조적이다.

10. 우리 속담에 따르면 변소 갈 때 마음과 나을 때 마음은 많이 다르다고 한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보라.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지?

마27:25: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마 그 때 한 말은 농담이었나 보다. 그러나 어쩌랴 알고 보니 장난이 아닌 걸.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부로 장난칠 일이 아니다.

11.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어느 한 편을 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기 나온 사두개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정답은 무엇인가? 같은 목사, 혹은 장로나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하나님 편을 들어야 한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29). 누가 하나님 편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12. 복음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을 '누가, 무엇을, 왜'에 맞추어 베드로 식으로 정리해 보자.

누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신론)

무엇을: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메시아인 것을 확정하셨다.

왜: 너희로 회개케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셨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신론, 인론, 기독론이 배워야 할 순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다.

13. 사두개인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놈두자니 온 예루살렘이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만 같고 그랬다가는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냐고 나오면 목숨이 위태로울 판인데(28)... 그래서 나름대로 온갖 궁리를 다 했지만 허사로 끝난 셈이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낸 우리말 속담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14. 가말리엘은 비록 적이지만 칭찬할 만하다. 덕분에 비록 일시적일 망정 평온함 속에 교회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 중에 여태까지 이치에 맞는 말을 한 유일한 판원이었다. 나중에 그의 제자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가말리엘은 우리 편이다. 경기 중에 자살골을 넣은 상대방 선수처럼 말이다. 다른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면서 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는가?

1) 칼을 뺏다가 그냥 집어넣기가 쑥스러워서 무라도 베는 심정으로

1)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했지만 사도들에게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15. 별로 아프지 않은 매였을까? 매 맞고 기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그런 예를 들어 보라. 자신의 경우라면 더욱 좋고.

이 채찍질이 결코 농담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채찍에 살이 찢어지기도 했단다. 매를 뜬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수고라면 기뻐할 수 있는 예는 참으로 많다. 그것이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면 더욱 좋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골1:24)는 바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6 장

1.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제도적인 것이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였을지 생각해 보자.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원인: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융합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도 없어야 한다.

해결방법: 이런 일을 감당할 집사 일곱을 세움: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심방, 결혼, 돌잔치, 개업, 입택, 장례... 목사님이 이런 일에 하루를 다 보낸다면 말씀에 대한 기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초대하는 복은 초신자들에게 양보하고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매일 구제하는 것은 별도의 일인가? 말씀만 잘 선포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이 매일 선포되어도 또 필요한 것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조직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은혜의 말씀을 계속 누리려면 스스로 봉사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사도들이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3. 2절의 공평은 재정출납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殊가 되어 있다. 재정관계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옛날에는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재정을 장악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마음대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이유가 일본의 돈 때문이 아닌가? 박 대통령은 힘으로 쿠데타를 성공시켰지만 전 대통령은 재정을 장악하면서 모든 정보를 틀어잡고 무혈쿠데타를 성공시킨 셈이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부터 (전총회장 말이다) 돈 문제로 시끄러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감격이다. 사도들의 어떤 발언이 그렇게 감격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평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2)

4.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일의 경중이 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평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일의 경중을 따지는 말씀이 아니다. 말은 임무가 다르다는 것일 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없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10:42)'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행한 작은 봉사는 목사님의 위대한 설교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일학교 아이 하나를 붙들고 간절하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사도 자신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공평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5. 집사를 처음 세울 때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별도인가?

이 때는 성령 충만이 곧 지혜 충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베풀지 않는 이상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일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뜨거움과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일을 맡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6.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하였다. 요즈음 목사님들은 심방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다. 이 심방은 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교인들을 돌아본다는 심방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요즘의 심방은 말씀 전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불붙여 두려는 수단으로 전략한 느낌이 든다. 말씀에 의한 감동으로 교회에 불붙려 있어야 하는데 다른 열심에 의존하는 것 같다.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더 열심이어야 하는데

7. 유독 니골라에 대해서 설명이 길게 붙어 있을까? 이 사람 이름이 어디에 나오더라?

계2:6-15: 나중에 니골라당 당수가 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8. 초대교회의 성장이 눈에 보인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인원은 120명이었다(행1:15). 성령이 충만하여 행한 첫 설교에 3,000명이 더하더니(행2:41) 공회에 잡힐 때는 믿는 무리가 약 5,000이나 되었다(행4:4)가 너무 많아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무리(행5:14)를 이루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더 많아지고(6:1) →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였더라(6:7) 당시에 제사장의

수는 약 8,000명 가량이었다고 한다. 고정된 수입이 없는 제사장이 많았던 관계로 제사장의 사회적 신분 격차가 극심했다고 한다. 보직이 없는 제사장이나 생활이 어려운 제사장들이 부패한 유대교에 한말을 느끼고 개종하기도 했을 것이다.

9. 스테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를 전부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통합시키면?

성령, 지혜(3), 믿음, 성령(5), 은혜, 권능(8), 지혜, 성령(10) =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5가지) →
성령: 나머지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10. 스테반을 위협하는 무리를 두 무리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헬라파 유대인(9: 먼저 들고 일어난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12: 재판할 사람들)

11.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등장이다. 7장에는 스테반의 명설교가 이어지고 결국은 순교하고 만다. 농담같은 질문이니까 농담같이 대답해 주기 바란다. 스테반이 순교하게 (혹은 죽게)된 원인은 무엇인가?

원래 집사의 직분은 구제와 재정출납이었는데 주께 맡겨 사도들이 하던 일 즉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 변론까지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으며 열심히 전도함: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만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목사님들은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지도 모른다.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면서 하는 이야기다.

12. 사람이 악해지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듣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수긍하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무리들은 정말 악하다. 스테반의 어떤 점을 부정(혹은 거부)하고 있는가?

기사와 표적(8), 논리 정연한 가르침(10), 천사와 같은 모습(15)에도 굴복하지 않고 거짓 증인을 세웠으니...

13. 다음은 스테반의 죄목이다.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매 맞고 공회를 나오면서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스테반도 자신을 모함하고 고소하는 말을 들으면서 남다른 기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죄목에 대하여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힌트: 이게 누구의 죄목과 닮았는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했던 내용이 거의 이런 것이었다(마5:17, 마26:61, 막14:58 요2:19-22). 존경하는 분과 같은 죄목으로 죽는다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했다는 그 느낌을 상상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도행전 7장

1. 스테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설교의 요점을 알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물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행 6:13-14). 즉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

2. 1번 질문의 답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이 설교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에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테반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37: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신 18:15)고 모세가 말했다. = 예수는 얼마든지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칠 만한 위치에 있다.

44-50: 장막과 성전이 있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따로 있다. 곧 예수님이시다. 조금 어려운 뜻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없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말한다(요 2:21).

3. 2번의 두 가지 대답 외에 이 설교의 핵심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무엇인가?

39-43(=51-53): 광야교회에도 불순종 하는 무리가 있었다.

4. 역사 속의 위인들 중에는 평생 동안 쌓은 위대한 공적보다 단 한 마디의 말이 꼬투리가 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은 사람의 수 많은 장점은 애써 무시하고 단 하나 그것도 억지로 단점을 찾아 죽이려 든다. 스테반을 죽인 자들도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테반의 말 중에 스스로 옳다고 인정한 말은 애써 무시하고 흠잡을 수 있는 한 마디만 가지고 스테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무슨 말만 기억하고 있을까?

틀림이 없는 긴 설교는 제쳐두고 56절 한 절만

5. 사도행전은 스테반의 설교와 죽음을 기점으로 대변화를 보여준다. 이후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선교(8-12) 이방 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이야기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유대전도(1-7장).

6. 옛날에는 기도를 오래하는 것이 자랑이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심한 경우에는 신, 구약을 완전히 훑어야 끝이 났으니 애들이 기도시간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이제는 아련한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읊어 가는 것 같더니 다행이다, 도중에 멈추었으니. 누구에게서 멈추었는가?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뒤에 여호수아나 다윗,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모세가 만든 장막과 관련이 있어서 잠깐 언급되는 것일 뿐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다.

7. 모세에 대해서 스테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 모세에게도 대적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졌다.

8. 스테반의 설교는 자신과 교회의 비난에 대한 변증(辨證)임과 동시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시작되었고 애굽이 번성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또 불러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불러내실 것이다. 어디서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고 불렀다. (exfecia에클레시아: 불러내다)

9. 스테반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자.

- 1)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우선이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우상시 하고 있었다.
- 2)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언약)은 주셨으나 (땅과 자손)은 거의 주시지 않았다.
- 3) 너무 모세, 모세 하지 마라.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뿐이다.

10. 스테반이 하고 싶은 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적어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어서 다 이루어주신 것처럼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

에게 전해 준 모세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한 약속도 이제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52c: 이제 너희는 (오리라 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이런 말씀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음이 틀림없다. 54 절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한다.

11.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가 어디선가부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열이 받더니 드디어 이빨을 갈게 되었다. 청중들의 마음의 평온이 깨지기 시작한 곳은 몇 절부터일까? 1) 무딘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해도 별 변화가 없겠지만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2) 아무리 무덤도 그렇지 '저 놈의 자식이...' 이랬을 구절은 몇 절?

1) 35: 모세를 거절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요지를 빠르면 여기서부터 눈치를 챘을 것.

2) 51:

12. 설교의 핵심은 예수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을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 신론,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하셨는가? - 인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 기독교론,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테반의 이 설교에는 예수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제대로 된 설교인가? 아닌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설교의 핵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란 이름을 한 번도 들먹이지 않으면서도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벗어나 예수에게서 새로운 성전과 율법의 의미를 찾으라는 고도의 절제되고, 세련된 기술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까?

13. 스테반이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스테반이 은근슬쩍 너희도 이런 짓을 했다는 실례를 든 것을 다 찾아보자.

1) 요셉을 판 형들, 2) 우상을 섬긴 자, 3) 모세에게 대항한 자,

14. 스테반이 열정적이고 역사적인 설교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왜 한 마디를 더 해서 죽어야 하나? 하필이면 놀라운 광경이 거기에서 보이는가? 스테반이 꼭 죽어야 했는가? 스테반이 살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교회의 성장은 스테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어서 시작된 대박해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영역을 넓혀 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테반에게 놀라운 하늘의 감격을 맛보여 주신 것뿐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결코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15. 놀 때는 적극적으로 노는 것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노는 일에 그리 익숙하지 않아서 불신자들과 함께 춤추는 곳에 가면 오래 자리에 앉아 가방이나 옷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사울은 무슨 역할을 했기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는가?

이번 일에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암시

16. 예수님을 처형하던 과정과 비교해 보면 스테반의 죽음은 속전속결로 끝나버렸다. 몹시 흥분한 군중들이 순식간에 저질러 버린 일이다.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재판을 거치지도 않았고 실제로 사형집행의 권한은 로마에 있었다.

17.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쓰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은 헷 족속인 에브론의 헤브론(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다(창23). 세겔 하물의 자손에게 금으로 값을 주고 땅을 산 사람은 야곱이었다(수24:32). 15, 16절은 이 두 가지 기록이 뒤섞여서 착오를 일으킨 것처럼 보인다. 스테반이 착각했거나 누가 착각을 했거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기록한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이런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다. 성경공부에 양념이기도 하고, 각설하고 15, 16절을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

아브라함 → 야곱, 은 → 금, 야곱과 우리의 조상들 → 요셉

18. 스테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사람이 이렇게 선행할 수가 있을까? 스테반은 그렇게 선행한 사람이었는가?

스테반이 선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늘의 군대: 고대 근동의 우상이었던 일월성신을 가리키는 말

몰록의 장막: 아람의 主神, 낯죄로 된 황소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태인데 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였다.

신 레판: 앓수르의 별신

증거의 장막: 모세가 만든 회막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주신 증거들, 즉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그 안에 보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발등상: 발판, 발을 올려놓기 위한 상

사도행전 8장

1.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흩어져 버렸다.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도망간 장소가 어디인가 본 듯하지 않은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행 1:8과 흡사하다. 즉 복음을 받고 기쁨에 들떠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다. 박해마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2. '교회를 잔멸할 새' 교회를 다 때려 부셨다는 말인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다는 말이다. 교회 건물보다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들이 내는 헌금이나 봉사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3.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모습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의 모습과 어떻게 닮았는지 설명해 보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나 감격에 겨워 온갖 열심을 다 낸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4. 초대교회에 일어난 박해는 어쩌면 (잔디에 난 불을 끄려고 두들겼더니 더 번져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정말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었는데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쯤 저러다가 조용해지겠지' 하고 관망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도망을 가고 동작이 느린 사람들은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무대는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로 옮겨간다.

5. 초대교회에 가해진 대박해는 다음 중 어느 설명이 옳을까? 1)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널리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감격하며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다. 2)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얼마쯤 저러다가 조용해지겠지' 하고 관망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 당시 관원들의 무지몽매함이 원인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기심의 발로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함마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다.

6. 빌립의 전도 활동이 놀라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런 일이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구절 때문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25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7. 빌립과 시몬은 선생과 제자? 물론 아니다. 전도자와 새 신자? 글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

진짜와 가짜

8.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5, 12, 35)

9. 사마리아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고 있었다. 아마 빌립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시몬은 계속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지냈을 것이다. 우리도 시몬을 따랐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속아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요일 4:1-6). 환상을 보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을 보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능력이라고 호들갑을 떨어선 안 된다. 한국에만도 영터리 재림 예수가 몇 백 명이나 있었고 다미 선교회의 코미디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올바른 성경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10. Noise(소음, 잡음)란 단어에는 참 재미있는 뜻이 하나 있다. () 위대한 인물'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말이다. 시몬의 하는 짓을 보면서 앞의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자.

자칭

11. 시몬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의 추종자가 많이 있는데도 빌립을 따르고 세례를 받은 점과 사도들이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한 점: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의 작전일 수도 있다.

12.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는 시몬이 느닷없이 돈을 주고 성령을 내려주는 능력을 살려고 마음먹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핑계거리는 있지 않을까? 모르고 한 짓이 아닐까? 아직은 놀라기만 했을 뿐 하나님에 대해, 또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사도들의 책망을 보면 다른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른 것이 자기도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빌립을 따랐을지도 모른다.

13. 왜 시몬은 이런 능력을 살려고(to buy) 마음을 먹었을까?

영터리 능력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살았는데 진짜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력은 있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속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삶의 형태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시몬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다.

14.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돈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그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도 그랬는데. 어쩌면 돈으로 인하여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몬더러 지옥에나 가라는 저주는 아니다. 어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가?

22절: 진정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다. 시몬을 저주할 의도였다면 이런 말 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으로 교회의 지위를 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교회나 교단 선거에도 돈이 필요한 모양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시몬처럼 될 사람이다. 교회에서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자. 그럴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없을 때부터 마음을 다져 두어야 한다.

15.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선봉에는 성령님이 계시었다. 사도들과 집사들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세 군데)

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39: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16. 율법에 따르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신 23:1).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이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먼 곳에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다니러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긴 여행이다.

뜻도 모르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는 질문에 꼭 팔릴 것을 염려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체면이나 권력보다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국고를 맡고 있다는 말은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다. 처음 보는 빌립을 선뜻 초청하여 배우는 자세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인물인가를 잘 보여준다.

17. 40대 중반을 넘긴 SFC man들이 잊을 수 없는 목사님 중에는 서울 경향교회에 계시는 석 원태 목사님을 들 수 있다. 뜨거운 열정과 거칠 것 없는 열변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적인 목사님이셨다. 그 분의 이야기 한 토막이다.

고2 댕가 억지로 끌려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니 이권 말도 안 된다는 오기로 신약성경을 50번이나 읽고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는 독립투사였다. 수많은 기적은 그를 위인으로 만들어 독립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지어낸 이야기이고 이런 일은 촌놈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실패해서 잡혀 죽었다. 그렇게 나름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어느 전도사님이 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구절을 들으면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단다. ‘그가’란 말이 ‘예수’가’로 틀리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에 독립투사 예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만 보이더라는 것이다. 도대체 저런 말씀이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인지 사고 싶어 있는 돈 다 털어 몇 십리 길을 걸어 마산 시내를 다 뒤졌단다. 책방마다 가서 물었다는 말은 “‘그가 찔림은’ 카는 책 있어요?” 어떤 주인은 “신간인가? 아직 안 나왔는 모양인데...”라고 대답하더라. (똥= 얘기는 생략)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본문이 바로 위의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게 된 본문과 같다.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뜻도 모른 채 읽고 있던 성경이 바로 위의 목사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된 바로 그 본문 사 53:7,8이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설교와 기독교 교육의 처음이요 끝이어야 한다. (이사야 본문과 여기 인용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난다. 그것은 여기 인용된 것은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었던 70인 역의 인용이고 우리말 성경의 이사야 본

문은 헬라어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18. 학자들은 빌립이 내시를 만난 곳이 어디일까에 호기심을 가지고 보다가 물 있는 곳에 다달았음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연못이나 샘, 혹은 시내가 있는 곳을 다 찾아본다.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할 만한 곳이 딱 한 군데만 나오면 좋지만 여러 군데가 나오면 좀 어려워진다.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은 곳을 찾은 다음에 빌립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추정하여 그만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곳이 바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장소가 된다. 이런 것은 학자들이 할 일이다. 나는 능력도 물론 없지만 그런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싶지도 않다. 왜 그럴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모르겠다고 한 그 날에 대해서(행 1:7) 과도하게 관심을 가진 결과가 바로 그릇된 종말론이 득세하는 이유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 내시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방인인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른 자세다.

19. 교회 안에서는 벽이 없어야 한다.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공존하기가 어렵지만 교회에서는 이 두 부류 사이에 벽이 없어야 한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의 위력을 나타내려 해도 안 되지만 돈 없다고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 된다.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소위 직업이 천하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벽이 없어야 한다. 남녀의 차별(구별이 아닌), 신분의 차이가 결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몇 백 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유대 사회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8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벽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려면 일부러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역 'ㄷ' 자 모양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안수를 했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잔멸(殘滅): 쇠잔하여 다 없어짐, 잔인하게 멸함

아소도: 블레셋인의 도시, 구약의 아스돗

공변된: 공평하고 정당하여 치우침이 없는. (한자어가 아님)

혼연(欣然): 매우 기뻐하는 모양

사도행전 9장

1. 다메섹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지금은 무엇이라고 불릴까? (참고로 프랑스를 한자어로 불란서라고 불렀고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기독교라고 말한다. 다메섹도 한자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다마스쿠스(현재 시리아의 수도)

2.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스스로 박해에 앞장을 섰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던 악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가 이렇게 악한 짓에 앞장섰음에도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방향만 살짝 틀어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일할 사람이다. 다만 그의 행동에서 그릇된 열심이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덮어놓고 열심만 내지 않도록 유의하자. 열심 +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

3. 빛이 비치는데 왜 옅어지지? 햇빛이 아주 강하면 옅어지는가? 햇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사람을 옅어지게 하지는 않는다. 이 빛은 흠여지는 빛이 아니라 사울에게만 둘러 비추었다.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란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였는가?

시104:2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딤후6:16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요일1:5 하나님은 빛이시라

4. 소리만 듣고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는 말과 다음의 행 22:9과 비교해서 다시 정리해 보라. '빛은 보면서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들지 못하였더라'

사울을 둘러 비추는 빛은 보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5.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사울을 이런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과, 사울에게 직접 이런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셔도 될 텐데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것이나 눈이 안 보이게 된 것과 굳이 안수하고 기도하게 해서 보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방법이 더 쉬울 텐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으려 하심 ↔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과 많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과 교제를 원하셨고 그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6. 다메섹에서 사울이 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까?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사상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결단의 시간들이었을 것. 기도했을 것이지만(11) 중요한 것은 이 사흘 동안에 고민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사울이 변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7. 단단한 바위는 한 방에 깨어지지 않는다. 사울의 회심도 그렇게 간단한 한 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동원하신 수단을 모두 찾아보자.

1) 빛으로 거꾸러뜨림

2) 음성으로 예수 자신이 핍박받고 있음을 귀중함

3) 환상으로 시력을 회복할 것임을 보여줌

4) 자신이 최대의 적으로 여겼던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의 말을 들지 않을 수 없도록 아나니아의 기도로 회복함

5) 성령으로 충만케 함

6) 그렇게 핍박한 자기를 형제라 부르며 따뜻하게 맞아줌

8. 하나님께서 무어라 하시면 그저 '예' 할 일이지 아나니아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시키시는 일이 위낙 황당한 일이라서: 그만큼 사울이 두려운 존재였음

9. 아나니아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른다. 왜?

교회를 핍박하는 저렇게 나쁜 놈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다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하필이면 저런 놈입니까?

10.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수단이었을 것이다.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의 상을 받으시다. 이 말도 교회에서 전도를 가르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할 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냅시다. 이런 주장, 이런 가르침이 들고 싶다.

5:41: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였음, 우리가 누릴 참된 평안과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11.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전쟁 중에 자신들을 구해 줄 원군이 왔는데 ‘이제 살았다’ 하고 불러놓고 보니 적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죽었지 머’ 사울이 어떻게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며,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다음 설명 중에서 골라 보자.

- 1) 안수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 2) 사울은 준비된 그릇이다. 유대인들과 논쟁해서 이길 만한 실력이 본래 있었다. 다만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
- 3) 교회를 그렇게 박해할 정도로 권력이 있었는데 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부쳐 버렸다.

12.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것(15)

13. 우리가 쓰는 비디오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디오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비디오는 지금 일어난 일을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게 해주는 가전제품이다(재생용).
하나님의 비디오는 나중에 될 일을 미리 보여줄 수 있다(12)

14.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본문에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 다음 표현들 중에 그 의미가 가장 다른 것 하나와 약간 다른 것 하나를 골라내고 이유를 말해 보자. ‘주의 제자(1), 그 도를 좇는 사람(2), 주의 성도(13),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14), 제자들(19), 그의 제자(25), 그의 제자(26), 형제들(30), 성도들(32), 여제자(36)’

그의 제자(26): ‘그의’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다. 즉 그가 제자가 된 것

그의 제자(25): 다메섹으로 갈 때 따라왔던 부하들은 아마 자동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 물론 거기서 사울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울을 통해서 전도된 예수의 제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의 제자라는 말이다.

15.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 제자들도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쉽게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왜 쉽게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자신들을 잡기 위한 작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16. 5.16혁명 때 차지철이라는 육군대위가 있었다. 혁명의 주체세력도 아니었지만 혁명이 일어나자 당돌하게 박정희 장군을 찾아가서 혁명을 지지하고 육사생도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는 육사생도의 지지를 얻어냈다. 당돌한 이런 행위로 비록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을 때는 국무총리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다. 결국은 10.26 시해 사건 때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욕을 들으며 박 대통령과 함께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성경을 보다가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지철 만큼 당돌해 보이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 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누리다가 불명예스런 죽음을 당했고, 한 사람은 예수의 손에 붙잡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행복을 만끽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17.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목해 두자. 4장에서 발을 팔아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고 설교와 위로하는 능력이 뛰어나 권위자(勸慰子)라고 불리던 그가 여기서는 사울을 모두가 두려워 기피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중에도 사울의 후견인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된다.

18.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받은 최초의 해는 무엇인가?

신분 추락: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갔다가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됨) 그 이후 사울을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은 한 돌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기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함

19. 스테반을 위시한 많은 순교자들의 고통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에 담긴 박해는 정말 싱겁게 끝나 버렸다. 어떤 점이 가장 싱거운가? 또 그 박해가 교회에는 어떤 유익이 되었는가?

주동자며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울이 거꾸로 가장 열성적인 제자로 바뀌었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함: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로 바뀌고(복음의 확장),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서 수적으로 증가함

20. 핍박받는 사울을 왜 다스로 보냈을까?

사울의 고향이었기 때문(11) (아마 사울로 인해서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지도)

21.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모습과 흡사하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점이. 다른 점이 있다면?

결과가 다르다. 베드로는 교회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다.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은 제자를 뒀이었다.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기 때문이다.

22. 복음을 위해서 열정과 능력을 지닌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감격적이다. 유대인이라면 극히 꺼리던 일마저 복음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해내고 있다. 베드로가 만약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른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2가지 찾아보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 피장의 집에 머무는 것

23.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악독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울의 경우도 그런 경우일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사울이 변한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변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을 만나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자. 비록 방향은 틀렸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난한 신기루 장사 무디를 들어서 놀라운 부흥사로 만드신 하나님? 아니다. 고쳐 생각해야 한다. 비록 가난한 신기루 장사였을망정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무디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24.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막 5:41에서 행한 기적과 흡사하다. 아마도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달리다굼(아람어: 소녀야 일어나라)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무어라고(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했다면) 그랬을까? 참고로 ‘달리다 굼’은 원어로는 두 어절이다.

다비다 굼: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이므로.(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 홍순판 굼!)

25. 신약교회의 중추적 인물인 바울과 베드로가 대비되어 있는 듯하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로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반면에 사울(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열렬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도리어 쫓겨 다니거나 사람들이 꺼려하는 모습이 적혀 있다. 그러한 이 두 사람이 교회사에서 본다면 사울(바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전공을 무엇으로 택했느냐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전공한 탓이다. 위대한 바울의 사역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가 없이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감사와 감격은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보자.

1) 대학을 보낸 것(회심시킴)과, 2) 전공을 선택해 준 것(15, 이방인에게로 보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바울은 공부를 열심히 한 좋은 학생이고.

피장(皮匠):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짐승의 주검을 취급해야 하므로 유대인들이 극히 꺼리는 직업

사도행전 10 장

1. 옛날 우체부는 참 피곤했겠다. 사람들이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것 같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가야 하는 집의 주소는 무엇인가?

해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

2. 우리는 기도하러 어디로 가는가?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특정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아니라도, 다락방, 서재, 소파...

베드로는 지붕: 원래 지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널찍한 곳이었다. 곡식을 널기도 하고 기도처로 사용하기도 하고

3. 베드로가 본 것은 보자기였을까 그릇이었을까?

보자기같이 생긴 그릇

4.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답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답이 조금 달라진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다. 즉 15절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28).

5.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마28:19)'라고 명하셨음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다.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외울 때도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크게 말하며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명이 잘 된 것 같은가? 뭔가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자. 이 환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뭔가 빠진 것이 있다. 한 어절만 보충해 보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져두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되 반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져두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6. 이 환상을 본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 혹은 느낌이 드는가? 나도 이런 환상을 한 번 체험했으면 싶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고 드디어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중간의 전도자나 선교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어서 더욱 감사하다.

7.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왜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가?

베드로의 말이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깨끗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과 정한 것들이 분간 없이 뒤섞여 있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구별이 없다. 학교, 학벌, 지방... 따위로 구별하는 짓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8. 너무 혼한 이름도 참 불편하다. 한 교실에 같은 이름이 둘 있으면 주로 '큰~, 작은~'라 하고, 교회에서는 주로 이름 뒤에 영어 알파벳을 붙이는데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바닷가 피장 시몬(5-6, 17-18, 32)

9. 이건 불만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으면 베드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내버려 두셔야지 또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20)은 지나치다. 좀 재미없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 그만큼 베드로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말이다.

10. 너무나 쉬운 환상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되는 최초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방인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는 것(22):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몹시 비난함(10:28, 11:1-3 <신 7:1-4)

11.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는데 천사는 왜 두 사람이라고 하는가?

두 사람의 임무는 고넬료의 심부름, 또 한 사람은 아마 호위병 아닐까? 그래서 계산에서 뺄 수도 있다. 버스 기사에게 몇 사람이 탔느냐고 물어보면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 가령, 안내양, 자기, 공짜 손님 등은 사람 수에 넣지 않는다.

12.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이 꽤 건방지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너’라니? 어떻게 혼내지?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

13.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다.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를 칭찬해 보자.

사회적 신분으로 치자면 베드로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임에도 그에게 엎드려 절한 점: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의 장교, 나도 사람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느낌
온 가족과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린 점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자 함

14. 재미 삼아 이런 생각도 해 보자, 머리 혼련도 시킬 겸. 하인들이나 베드로가 목적지에 이틀날(9, 24, 단 23절은 아님) 들어갔으면 옴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나홀 전(30)이라 하는 길로 봐서 왕복에 나홀이 걸린 셈인데...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낸 시간과 도착 시간도 대략은 짐작할 수 있는데 하인들이 걸린 시간과 베드로 일행이 걸린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로 하인들이 출발한 시간과 도착 시간, 베드로의 도착 시간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같다)

하인들은 고넬료의 기도 시간인 오후 세시 이후에 출발하여 베드로의 기도 시간(정오) 끝 무렵에 도착했다. 베드로는 아침에 출발하여 고넬료가 처음에 계시를 보았던 그 시간쯤에(30절의 이맘때)에 도착했다. 하인들처럼 잘 걸으면 하루가 안 걸리고 베드로처럼 많은 일행이 걸으면 하루를 조금 넘기는 정도의 거리 같다.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들은 대략 80리(약 30km) 거리에 있다. 옛날에 사람이 하루 동안 걸으면 적당한 거리에 마을이 선 탓이 아닐까? 최대한 60km는 넘지 않으며 30km는 넘는 거리다. 실제로는 약 50km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가장 근사치를 낸 사람을 정답으로 하거나 오차 범위를 미리 적당하게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 든 사람을 전부 정답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15. 고넬료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렀지만 그는 시몬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시몬이 찾아왔지만 그 시몬의 말을 들으려고 시몬을 만난 것이 아니다. 고넬료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누구 앞에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함(33): 설교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6. 34절에 베드로가 말을 하기 전에 입을 열었다. 누구도 안 열고 말 하나?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마5:2).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하지?

중대한 발언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 (마5:2, 13:35, 행8:35, 18:14)

17. 고넬료를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34)’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좀 이상하다. 베드로의 생각대로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되는가?

유대인이려면(=외모에 지나지 않는다) 무조건 자녀로 삼는 것(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 비록 이방인이지만(=외모는 시원찮다는 뜻)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8.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37-43)를 베드로 자신이 요약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_____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35-38,40,4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36)을 이루셨습니다(롬5:10): 37절 처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36절과 37-43이 같은 내용임을 밝히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즉 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구원론을 압축한 설교인 셈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가 이 범주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19.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믿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부지런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신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본문에서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을 하나 찾아보자.

할례받은 신자들(45): 여전히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신자들? 생각파지는 변하지 않은 사람들, 고넬료의 집까지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그 당시의 신자들은 전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유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들이란 뜻일 것이다.

20.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을 불러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아무라도 물 대신 침을 뱉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세례가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례는 단지 하나의 표시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본문의 사건을 인용하여 설명해 보자.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표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 치셨다는 말이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뒤늦게 베푸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일 수는 없다. 단지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탈리아대: 당시 가이사랴에는 5대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4대는 본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탈리아대만 로마인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을 보호하는 부대였던 것 같다.

사도행전 11 장

1.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이토록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베드로를 '힐난'하다니? 확고한 확신이 없이는 감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할례자들이 그러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자신들만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할례자들과 비교했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신자들: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된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지위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채 교회 내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자들. ↔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대조가 됨

2. 베드로는 성질도 좋다. 나 같으면 이렇게 찬찬히 설명 못한다. 복음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다녀왔는데 칭찬은 못할망정 비난부터 하다니... 본질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지엽적인 문제점만을 물고 늘어지는 이 문제 많은 할례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베드로가 정말 정겹다. 베드로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혹은 '수양이 많이 되어서' 등과 같은 베드로의 변화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워낙 크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이 사건 없이 바울이 등장할 수 없다. 베드로 자신도 그러하거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너무나 크고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베드로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급한 사람도 조용하고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도록 차곡차곡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다. 빌립이 다니면서 사마리아에 불을 붙였고 뒤이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했고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꽃 피우게 되지만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환란을 피하여 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20): 유대인 아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아마 동족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이방인 전도에 진짜 불을 붙인 사람들이다. 이름 없이 복음에 열정을 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실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4. 베드로의 설명은 10장의 기록과 내용은 똑같은 것이지만 보는 사람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조금씩 차이가 보인다. 다음 몇 가지만 비교해 보자

1) 천사는 두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다: 내용을 잘 아는 천사가 보기에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베드로를 모시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둘, 한 사람은 호위병?) 이 사실을 모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맞다.

2) 고넬료에게 갈 때 같이 간 형제가 6명이었을까? 10장에서는 그냥 두어 형제라고 했는데: 옴바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따라간 사람 외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동행한 다른 형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고넬료의 하인들이 배웅의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했거나

3) 성령의 임하신 때도 약간 다른 듯싶은데: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한 후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음. 여러 날 묵으면서 권속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므로 첫 번 설교 때에 성령이 내리셨다고 해도 '말을 시작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 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임하셨고 말씀이 그 위에 더하여 진 것이라는 점이다.

5. 사도행전이란 이름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란 느낌을 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 옳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하지만 이 일이 되어진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이름 없이 헌신한 성도가 꼭 필요했었지만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21)

6. 베드로의 눈에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심상찮은 일이었을 것이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해결책은 어디에서 나왔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행 1:5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떠오를 만큼 평소에 많이 들어 두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다독도 정독도 다 필요하다.

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환호, 찬양, 박수들이 어우러져서 시끌벅적할 것이다.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잠잠하고 독백하듯이 베드로의 발언을 인정함: 끌어오르는 격렬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말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8.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권위자요 훌륭한 교사인 그는 꼭 필요하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는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만 출석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출발일 뿐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가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9. 나중에 의견이 달라 서로 갈라서게 되지만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바나바다. 왜 잊을 수 없는가?

제자들이 기피하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도 바나바이며 적어도 10년 이상(갈 2:1) 고향에 묻혀 있던 그를 불러내서 사도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도 바나바이다.

10.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았으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다 받았을까? 행 2:47, 5:13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제자들의 삶을 보고 칭송했다고 한다. 그런 칭찬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영광스런 뜻이다. 90년대 말 한국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치욕적인 의미로 쓰였는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개개인에게는 이 말이 자랑스러운 말이 되도록 살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렇게 불렸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11.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사람의 역할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말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만 찾아보자.

이에(24):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도 있는 것이다. 좋은 교인보다는 좋은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이렇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은 교인들이 좋아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좋지 않다. 부족한 지도자를 비난하기 위한 구절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12. '그리스도인'을 네 글자로 줄이면 크리스천이 된다. 두 글자(두 음절)로 줄이면 *Christian*이다. 세 글자로 줄이면?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기독교(基督)이다.

13.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방인들도 같은 형제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받아들인 것은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분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선지자: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예언을 하기도 했던 사도 다음의 직분이었다. 영감 받은 교사들인 셈이다.

장로: 성경에 장로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교회의 장로라는 의미는 여기서 처음 나온다. 아마 교회의 구제 업무를 맡았던 집사를 가리키는 것 같다.

구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다. 두로와 시돈이 이 지역 내에 있다.

안디옥: 신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행 13:14)과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구브로: 요즈음 지도에는 키프로스(Cyprus)로 기록된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으로 안디옥, 다소, 길리기아와 마주하고 있다.

사도행전 12 장

1. 해롯이 왜 이러지?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나 통치 이념에 따른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1) 교회 전체를 핍박하기보다는 그저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깐 더 설친 느낌을 준다.

2. 예수님께 대적인 무리나 초대교회를 핍박한 무리는 주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행 4:1, 7:1, 9:14)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핍박의 주체가 변하고 있다. 해롯은 이 한 번으로 퇴장하지만 꿈이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휘방한 무리는 누구일까?

유대인들: 전에는 유대의 지도자들만 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의 대중들도 여기서는 단순하게 동조자 정도로 나오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휘방자로 등장하게 된다. 대신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진다.

3.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는 1) 전부 몇 명인가? 2) 어떤 형태로 지키고 있는가? 3) 싸움을 잘 하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왜 이렇게 엄중하게 지키고 있을까(5장 참조)?

- 1) 네 명씩 네 편이니깐 16명,
- 2) 두 사람은 함께 묶여 있고 두 사람은 바깥에서 지키고,
- 3) 특별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있기 때문에(5:19)

4. 야고보는 죽게 버려두고 베드로는 구해내시는가?

이런 질문에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죽어야 할지 계속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했다(빌 1:20-24). 그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런데 왜?' 하고 반문할 것이다. 죽으면 안 되나? 불공평하게 대한 것인가? 인생의 기준에서 보면 베드로는 복을 받았고 야고보는 사랑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다.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인 것이다. 다만 복음 사역에서 맡은 배역이나 역할이 다를 뿐이다.

5. 베드로도 어지간하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러고 있나? 우리가 야단을 좀 쳐 보자.

교회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든지 탈출할 생각을 하든지 뭔가를 시도해야지 잠을 자다니?

베드로가 잠이 많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일이 죽을 날인데 잠이 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는데 수제자가 이 무슨?

6.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를 보면 참으로 부러울 것이다. 내일이 죽을 날인데 곤하게 잠을 자다니? 곤히 잔 증거가 무엇인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움: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본인은 자다니? 그야말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시 127:2).

7.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야고보의 체포와 처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 미처 기도할 틈이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답이 아니다. 장난이다.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도 기도는 했을 것이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그 기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삼하 12장). 야고보를 위한 기도가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된다. 야고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4번의 해설을 보자.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구출된 것이 전적으로 기도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베드로를 구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도 성도의 기도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격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은 교회로서는 대단한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베드로마저 체포되었다. 교회는 힘을 모아 대항하거나 특공대를 조직해서 베드로를 구해오거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베드로의 구출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8.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 만약에 베드로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다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로데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문 열어 주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라면 도무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또, 로데의 전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에서도 베드로가 구출되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처럼 기도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박해를 이기고 교회가 말씀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의 핵심이 베드로의 구명에 있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더 생각할 문제)

9.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바울이 되었다. 반면에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충이 먹어 죽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지만 헤롯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없이 자기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것이란 뜻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보자.

베드로의 구출 사건: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셨다.

11. 베드로가 자신이 구출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했다. 여기의 야고보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활동내용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의장을 맡을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한 때는 예수님을 비난도 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위급한 때에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왜 없었을까?

자신도 위험하여 피신했을 것이다: 베드로도 급히 피해야 할 상황이니까 지도자들은 피해야 했을 것

12.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격이 싼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식량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한 때 식유를 무기화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식량이 무기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좁게 보면 농민보호 차원이지만 넓게 보면 민족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 셈이다. 식량이 무기화할 수도 있음을 누가 누구에게 보여 주었는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세 사람의 야고보:

1)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배대의 아들로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세 명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급하고(눅9:53,54) 이기적인 성격으로 (막10:37) 우리의 아들(보아너게)란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10:3, 행1:13): 이름만 있고 활동은 거의 없음

3) 예수의 동생 야고보(15:13, 21:18, 갈1:19):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활동함.

무교절: 죽음에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마지막 날 무교병을 먹는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니산월(종교력 제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하나. (출12:15-20)

효유(曉諭, deliver a public address to the people): 우리말의 의미는 ‘알아들게 타이르다’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군중과 연설하다의 합성어, 즉 군중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다.

사도행전 13 장

1.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다. 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1) 가장 권력에 가까운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옌,
- 2) 가장 검은 사람: 니게르는 니그로란 말이다. 즉 시몬,
- 3) 가장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 사울(교육적인 면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가졌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 화려한 명성을 날렸다),
- 4) 가장 정통파 그리스도인: 바나바(초대교회의 시작 때부터 모범을 보였던 사람)

2.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깐. 이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된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음은 확실하다. 음식과 기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3. 바나바는 권위자(행4:36)라고 불렸다. 權威? 아니다. 권할 勸 위로할 慰, 병든 교인을 위하여 목사님이 심방을 갔지만 능력 있는 기도로 낫게 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초야에 묻힌 바울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칭찬을 해 보자.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지원함

4. 안디옥 교회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이유를 두 가지 든다면?

개성과 배경이 다른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조화롭게 교회를 이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달라 하실 때 기꺼이 내놓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5.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 라는 고백을 남겼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한 것이다. 우리도 그의 고백에 동의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보자.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함,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려옴, _____, 성령이 파송함

6.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론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배격인 사도 요한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어떤 요한인가?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다. 그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모여서 기도 하던 그 집 주인의 아들: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다.

7. 이제나 그제나 전도사역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휘방자가 있게 마련이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수종자로 있던 요한이 돌아가 버렸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다(15장).

8. 독한 시어머니 밑에 독한 며느리가 생기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으며, 야단을 맞아 보지 않으면 야단을 치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바울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생겼다. 복음을 휘방하는 박수 엘루마에게 내린 벌을 보면 무척 재미가 있다. 무슨 재미? 해매는 엘루마의 모습은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혼이 난 것이 바로 소경처럼 해매 것이었다.

9.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경력으로도 바울은 바나바의 새카만 후배다. 그래서 바나바는 전도단 단장이고 바울은 부단장이나 총무쯤 될 텐데 드디어 역전이 되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아마 박수 엘루마 때문일 것이다. 드디어 바울이 전도 사역의 중심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은 어디에 있는가?

13절: 바울(바나바가 아니고)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10. 바울은 더 이상 안식일과 회당에 매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는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전도 대상자가 회당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11. 전도여행의 코스를 외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복잡한 지명을 어떻게 외우나?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바울의 일행은 두 군데밖에 가지 않았다. 어디 어디?

안디옥 → 실루기아(항구) → _____의 살라미, 바보(항구) → _____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요약하면 안디옥 → 구브로(Cyprus) → 밤빌리아

12. 바울의 설교 요점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39)

13. 바울이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16)'이라고 한 말이나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26)'이라고 한 말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뜻인가? 어느 절을 보면 이런 의문이 해소되는가? 또 이 둘을 합쳐서 한꺼번에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43):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유대교로 완전하게 개종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완전하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설명도 있음)

형제들(26)

14. 스테반도 구약 역사를 꿰뚫으며 설교를 했는데 바울도 그런다. 스테반은 긴 역사를 언급하는 목적이 모세에게 초점이 있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증거하고자 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려는가?

다윗: 예수는 다윗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15.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즉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삼상 13:14 + 시 89:20)'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누이 약속하신 것은 '네 위가 영원하리라(삼하 7:12)'는 것이었고 다른 왕조에 비하면 무척 길었지만 결국은 사라졌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며 다윗의 위는 예수에게로 계승되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16.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용한 사람이나 수단을 전부 찾는다면?

다윗: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 실제로 다윗 왕조는 왕조에 비하면 장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세례 요한: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뒤에 오신다고 증거함

선지자들의 말 1: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외우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지자들의 말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필연 망하게 된다는 경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41절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많은 증인들: 부활을 목격했다.

시편 2: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시편 16: 예수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혹은 성경(선지자들의 말, 시편들)

17.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는 어떤 내용?

알아들지 못한 말: 오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말

응한 말: 망하리라

18.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아닌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하수인인 셈

19.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지 왜 우리 자녀에게(33절) 이루어졌을까?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은 조금 고쳐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다른 번역도 참고를 하는 것이 좋다. 조금만 수정을 해보자. 물론 사본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당대의 세대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20.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 주장하는가?

예수

21. 38절의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말이다. 그 다음 말

의 요약이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입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_____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입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다.

22.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으려고 왔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아니 도무지 _____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고 말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일이 어떻게 놀랍지 않겠는가?

믿음(41)

23.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만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47(사49:6):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유

24. _____는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알았을까? 그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또 예상 외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48): 이 말이 예정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5. 사도행전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눈다면 1)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 2) 사마리아 선교, 3) 이방 선교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장은 이 세 문단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방 선교의 출발점, 혹은 시작: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1-7장), 사마리아 선교(8-12), 이방 선교(13-28)

젖동생: 같은 젖을 먹고 컸으니 형제가 아니라고 해도 형제만큼 가까운 사이 혹은 어릴 때 함께 자란 사이일 것

사도행전 14 장

1.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행전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령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요 가장 많은 일을 한 바울을 선택하고 회심시킨 분도 예수님이시니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그 분이 그 분이신데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다. 어디인가?

3절의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2. 이고니온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것이 바울 일행이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된 이유인 것 같다.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 왜 오래 있었으며 어느 때까지 있었는가?

아마 믿는 형제들을 보호하고 이론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변증) 도와주려 했을 것이며 돌을 들어 치려할 때까지 버팀 (아마 무척 독이 올랐나 보다. 도망한 이들을 다른 지방까지 따라와서 돌로 쳤으니)

3. 바울의 두 번째 설교(기록된 것으로 만)는 첫 번째 설교와 많이 다르다.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론을 말하고 있다.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바로 증거하면 되지만 아예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재고해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

4. 성경 말씀이나 전도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가?

자연 현상 속에 (16절)

5. 작전상 제사를 받고 신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면 전도가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작전상으로라도 하나님의 위치에 감히 있을 수 없다. 전도의 열매가 다소 부실한 면이 있다 해도

6. 희랍의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은 제우스이며 그의 대변신(대변인)은 헤르메스이다. 그 신들의 신인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성경에는 이 신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쓰스, 허메(전령, 언어의 신)

7. 바울은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가? 앓은뱅이의 무엇을 보고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까?

바울의 말을 듣는 태도를 보고

8.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신당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는 두 사람 중에 바울이 더 큰 사도로 알고 있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이 바나바인 것을 어떻게 알고 바나바를 主神으로 생각했을까?

화관과 소, 바울이 말을 하니까 말하는 자는 헤르메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신이라고 생각함 (아마 생김 모습도 바나바가 더 잘 생겼고 컸을 것)

9. 바울이 앓은뱅이를 일으키자 그 지방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쳤다. 그러면 그 전에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앓은뱅이를 일으킬 때는 다른 말을 사용했다는 뜻인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를 바꾸나? 외국어를 쓴 걸까?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된 말은 헬라어였다. 그러나 사람이 엉겁결에 튀어 나오는 말은 모국어이다. 그만큼 놀랍고 흥분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예전에 ԿԱԼԷ를 폭파한 그 아가씨가 외국인 행세를 하니까 함께 있던 수사관들이 목욕탕에서 물레 뜨거운 물을 끼얹기도 했단다. 뜨거우면 갑자기 한국어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하려는 것을 말만 듣고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10. 바울도 일단은 돌에 맞아 죽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와중에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말고(빼고) 누구?

스데반: 모르긴 해도 바울의 가슴 속에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 있는 사람일 것이다. 천국에서 만나면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 사람일 텐데 이 일로 그 미안함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물론 스데반이야 웃으며 바울을 맞을 것이다. 나를 이 좋은 곳으로 먼저 보내고 대신

에 고생 많았소'라며, 그 재회의 장면을 나도 보고 싶다. 아니면 비디오로라도 보여 달래야지.

11. 유대인들의 박해가 집요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다 1차 실패하고 2차로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드디어 성공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정도로 끈질긴가?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전함(도망이라기보다는 작전상 이동),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 들어옴

12.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한다. 기쁜 소식이란 뜻이다. 이 복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은?

도(25)

13.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고 효과적이었던 표현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닐까?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복은커녕 신발을 잃어버렸다거나 예배당에 간 사이에 마당에 늘어놓은 고추를 누가 훔쳐가 버렸다고 교회 다니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던단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가르치는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14.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다. 무엇인가?

얇은뱀이를 고친 것과 죽었다고 버렸는데 살아난 점

15.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지를 큰 지방만으로 설명하면, 안디옥 → 구브로(Cyprus) → 밤빌리아 → _____ 이다.

루가오니아: 지방별로 좀 더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안디옥 → 실루기아(항구) → 구브로의 살라미, 바보(항구) →

밤빌리아: 버가(요한이 돌아감) → 비시디아 안디옥(회당에서 설교) → 이고니온 →

루가오니아: → 루스드라(얇은뱀이를 고침, 신이 될 뻔, 돌에 맞아 죽음) → 더베 →

돌아오는 길: 더베 → 루스드라 → 이고니온 → 안디옥 → 비시디아 → 밤빌리아의 버가 → 앗달리아 → 안디옥(수리아)

초인(招引): 죄인이 남을 끌어넣음, 여기서는 선동의 의미가 짙음

성정(性情):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

만유(萬有): 우주에 있는 온갖 물건, 예) 만유인력

사도행전 15 장

1.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 많이 하고 있다. 가령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무언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지도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와 봉사에 임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가?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초대교회 때야 더하지 않았겠는가? 좌우간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에는 유능한 교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총회로 모여서 결론을 내리는 것.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2.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돌아보고 와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원금을 끊어서 선교사가 돌아올 여비조차 없이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가끔 있단다. 돌아갈 여비가 생기면 그 돈으로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선교한다면 돈은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의 발목을 이런 식으로 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예전에도 있었다. 본문의 누구인가? 남이 힘써 일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집 안에 앉아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사람이?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옆에서 흠을 잡고 있는 사람이?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3. 할례란 요즈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시키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라고 표현하는가? 참고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서는 결론에 보면 할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할례란 단순히 할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할례는 그 율법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즉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4. 베드로의 변론을 다시 정리해 보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지원 주시지 않은 집을 우리가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저희나 다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_____ 친 부분은 본문의 어느 말을 풀어 놓은 것일까? (10자 이내로)

하나님을 시험하여(10) =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5. 어마어마한 권위를 지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니? 베드로의 말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건가? 결국은 _____의 제안 설명에 _____과 _____의 사례보고가 더해지고 _____의 찬조 발언이 있고서야 결론이 났다. 교회 제직회에 총회장, 당회장, 장로들이 다 나서서 설명을 하고서야 통과된 셈이니 결론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6. 야고보의 설명 중에 웬 시므온이 나오는가?

시몬 베드로라고 아시는가? 베드로의 본명이다.

7.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성경구절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권고해서 자기 백성을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할례 문제로 시작한 회의의 결론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의제를 조금 바꾸었던 것 같다. 할례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회의를 하다가 다시 그 근원적인 문제 즉,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선교가 정당한 것이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두 사도가 이방인 선교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만은 꼭 지켜라고 권면하자는 것이다.

8. 예수님은 할례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안디옥에도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예루살렘 총회에서조차 격론 끝에 간신히 결론을 맺은 것 같다. 1) 지켜야 할

수 없이 많은 율법조항 중에서 무엇만 멀리하라고 하는가? 2) 어떤 원리나 원칙하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1)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2)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기로 권고함:** 지도자의 좋은 모습이 보인다. 아래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힘들게 하는 지도자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총회가 모여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겨우 이런 결정을 내리느라고 그렇게 정열을 쏟다니 차라리 선교를 위한 어떤 행동을 결정했더라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별 것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참으로 어려운 법이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정이 있고서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비로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바울도 당당한 사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도 이단 시비에 휘말려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9.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이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 특별히 요구한 것이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었다.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음에도 술, 담배, 노름에 빠져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던 당시 한국 사회에 끼친 바람직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술과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 초대교회가 내린 이 결정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요긴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설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서로 연관이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영적인 음행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다.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뜻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목매어 죽인 것 = 피, 체내에 피가 남아 있기 때문: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피는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레17:11)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0. 사울이 바울이 되어 초대교회에서도 이제는 바울을 아주 귀한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아주 유익하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면 될 것인데 그 앞에 다소 길어 보이는 수식어를 붙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참 잘한 것 같다.

11.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여기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초대 기독교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재미로 서열을 매겨보자. 예루살렘에 모인 이 총회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 중에 바울은 서열 몇 위일까?

야고보, 시몬, 유다, 실라, 바나바 다음인 느낌이 든다. 당 서열 6위: 그나마 다른 사도들이나 장로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의 위치는 이보다 훨씬 낮았음에 틀림없다. 그가 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른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12.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대단히 다른 사람이다.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불릴 만큼 온화한 사람이었으니 한 번의 실수도 용서하자는 생각일 테고 바울은 꿋꿋하고 맺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니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을 못한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위대한 사도들이 이렇게 서로 갈라서는가? 여기서부터 교파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해 보자. 이렇게 갈라져서 따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같은 열심을 가졌더라도 생각이나 방법에서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주를 섬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면 차라리 일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일은 개인적으로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평생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은 마가와 함께 동역하며 각별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아 이 일이 마가에게도 아주 뼈아픈 교훈이 되게 했을 것이다. (골4:10, 딤후4:11)

헤어져 따로 갔지만 선교사역은 성공적이었다. 따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이 전할 수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설명보다는 따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싶다.

13. 이 다름으로 바나바가 몹시 화가 났던 모양이다.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나버렸다. 바울은 어떻게 하지? 전에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자고 했는데 바나바가 먼저 가버렸다. 따라가면? 질러가 버릴까?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지명을 참고로 해서 대답해 보세요)

단순하게 지난 번 전도여행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또 다른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 2차 전도여행이 되었다. 복음을 하려고 하다가 아예 다른 책을 한 권 때버린 셈이다. 그래

도 갈라선 것은 칭찬할 수 없다!

14. 아무래도 두 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다음처럼 생각하면 나름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

바나바는 오늘의 바울이 있도록 이끌어 준 사람이다. 처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과 고향에 묻혀 있는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서 할 일을 주기도 했는데 그 바울이 많이 컸다. 자신을 능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크더니 드디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지난 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너무 키워주었나? 도저히 참지 못해서 뛰쳐나간 것은 바나바다.’ 바울이 더 잘못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도 바나바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바나바는 괜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슬프다.

퇴락(頹落): 무너지고 떨어짐 (무너질 퇴, 떨어질 락)

변론(辯論): 옳고 그름을 따짐

사도행전 16 장

1. 전도여행지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데베와 루스드라가 나온다. 1차 여행 때 갔던 곳이지만 순서가 조금 다르다(14:6). 2차 전도여행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왜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었는지 추측을 해 보자. 참고로 1차 때와 비교하면 교통 수단도 다르다.

1차 때는 배를 타고 멀리 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쳤으니(15:39-41)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바나바와 마가가 뱃길로 먼저 가버렸으니... 아이고, 이 속아지 좁아터진 위대한 사도들아! 정말 잘 하던 분들이 왜 이렇노?

2. 부부가 서로 협력하며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대체로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휘어잡고 사는 경우가 많다. 둘 다 불행한 모습이다. 디모데의 부모 중에 누가 더 강한가?

어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 받았으니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했다면 아버지가 더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아버지의 신앙 쪽으로(헬라 문화) 가지 않았을까?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더 재미있을 텐데. 오락 할래? 성경공부 할래? 오락 안 하고 성경공부 하겠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를 잡은 셈이다.

3.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하다. 그렇다고 애매한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아서 생긴 핍박은 핍박도 아니다. 사회나 직장 등에서 그런 류의 욕을 먹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좀 심하지만 장로 투표를 할 때 불신자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어떨까? 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불신 결혼을 한 셈이지만 디모데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다. 형제의 눈도 중요하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좋은 의미보다는 뻔뻔질질하고 말만 많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파서 해 보는 말이다. 믿는 우리는 불신자와 믿는 형제들 앞에서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자세로 살자, 부디.

4.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기로 권고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하는가?

3절에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인정받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앞으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활용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버리는 지혜가 있으면 더욱 좋다.

바울은 정말 소신 대로 산 사람이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했던 그가, 또 할례 문제에 관해 안디옥에서부터 격렬하게 싸웠던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소신 없이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대단한 소신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양보나 타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자세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종처럼 살자. 모자라는 사람처럼 다 내 주면서 살자. 그러던 어느 날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자. (할례가 구원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자 앞에서는 오히려 역지로라도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다. 갈2:3)

5.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의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는데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가? 새로운 율법이 주어진 것 아닌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규례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과 달리 사람에게 명예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규례였다.

6. 세계의 4대 문명은 아시아에 있었다. 그런데 문명의 역사는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였다. 역사학자들은 고대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로마라는 거대한 호수에 집결하고 여기서 다시 유럽의 모든 나라로 흘러갔다고 말한다. 유럽의 문화가 그렇게 꽃이 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전해진 기독교가 있었다. 유럽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울이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바탕 없이는 문명의 성장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린 이 한 마디를 찾는다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6)’이라는 이 한 마디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놓았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7.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먼저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가 되어 세계 역사의 주

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깐 이 생각이 좀 틀려 있음을 알았다. 어디가 틀렸을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흔히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방의 남서쪽 지방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한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몰려 있는 지방이다. 인도를 거쳐서 한국을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다.

8.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방해로 놓아 갈 수 없거나 병이 났거나 하는 상황의 변화였을까? 아니면 환상을 보았을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은 아주 많이 있다. 이 부분에서 찾아보자.

전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세 분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나 있다. 성령(6), 예수의 영(7), 하나님(10)

9.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곳은 빌립보 곧 마게도냐 성에서다. 자주 장사 루디아는 이 성에 자기 집과 가족까지 있는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라고 하는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

10.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쓸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말을 잘 해서? 나를 희생함으로? 아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11. 아무리 귀신이지만 말은 옳은 말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여러날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두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위대한 복음이 귀신의 입에서 증거되는 일은 결코 유쾌할 수 없으며 유명세는 탈 수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여종의 형편이 불쌍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떠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상관들이야 이 여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들의 수입에만 관심이 있었겠지만 바울에게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12.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도 꽤나 영리하다. 자기 종의 병을 고쳐놓았다고 고소를 하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원수를 갚을 수 없다. 그래서 겉으로 내건 죄목이 무엇인가?

인종적 편견을 근거로 부추김. 나중에 그냥 석방되는 것으로 보아 마땅한 죄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리한 놈들. 영리한 교인들도 많다. 목사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면서도 결코 목사가 싫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직장을 옮기게 돼서, 혹은 이사를 하게 돼서. 왜 이런 생각이 나지? 본심은 숨겨둔 채 엉뚱한 말을 하는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가리켜서 '가면을 쓴 인간'이라고 하니까? (문예출판사, 폴 투르니에의 '인간 그 가면과 진실'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13.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 하신 일은 무엇인가? 2) 마땅히 하셔야 할 일 같은데 하시지 않은 일이 있다면?

- 1)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함
- 1)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함 (로마 최초의 믿는 자?)
- 1) 옥문과 매인 것을 열게 함

억울하게 잡혀 매 맞은 것을 방관하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서 사고도 생기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죽자고 열심을 내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복음을 위해 밥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굶어도 위장은 아무 탈이 안 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우리의 현명하지 못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부작용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사고도 질병도 불행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애매하게 매 맞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기회가 되었을 뿐이다.

14.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애매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밤이 되면 더욱 고통스러운 법인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찬미를 드린단 말인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외에도 또 누가 있었는가?

죄수들이 뜰더라. 낚시 밑밥에 입을 대고 있는 고기들이다.

15.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찬송이 기적을 부릅니다. 찬송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지옥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바울과 실라의 삶 자체가 이런 기적을 부르는 것이지 찬송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부분적인 것만 확대시킨 과대

광고 같다. 이런 애매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던 무정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즉 이전의 주를 위한 헌신이 없는 찬송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위력이라면 찬양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16.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냥 있었지만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 말 속에 아무도 탈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마 다른 죄수들도 무척 무서워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이다.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애꿎은 벼락을 맞는 수도 있고 풍향을 만날 수도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자 옆에 있으면 탈옥의 기회도 생긴다. 뽀뽀옹야!

17. 이 때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 외에 최소한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잡히지 않았을까? 젊은 사람들이어서 재빠르게 도망을 갔나? 그래야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럴싸해도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바울과 실라의 죄목을 보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디모데는 반헬라인이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 누가는 완전히 헬라인이다. 아마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18. '선생들아!' 이런 말도 있나? 하기가 '순과이 선생님 계세요?'라고 한 놈도 있고 있었다.

번역상의 문제다. 영어 성경에는 *Sirs*라고 번역되었는데 원문상으로 *kurioi* 즉 '주'라는 *kurios*의 복수형이다. '주님들이여'

19.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지 않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나?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도 우리를 구하실 수 없었을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는 것이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도 따르는 게 옳다. 나를 희생하면서 그 복음의 현장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감옥일 수도 있고 적진일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일 수 있으며 한없이 낮은 자리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되는 것은 나도 이렇게 되기는 싫다는 뜻이 아닐까? 싫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실린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20. 행 16:31은 외우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1. 두들겨 맞기 전에 로마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나갈 때 사과를 직접 받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음을 알 수 있다. 변명을 할 틈도 없이 잡아가두었다는 말이다.

22.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심한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도 기도하고 찬미하는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간수에게서 찾아 설명해 보자.

자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의 변화

23. 상관들, 상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 두들겨 놓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니다 싶으니 인심을 베푸는 듯이 살짝 내어보내려는 야비하고 무책임한 처사는 으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아니 어쩌면 다 그럴지도 모른다. 좋은 말로 나를 끌어둘여 놓고 말이 나면 내게만 뒤집어씌우는 일은 흔한 일이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게 지혜롭게 살자. 그러나 당하면 어떻게 하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

원수를 갚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은 했지만 원수를 갚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 하지 않았다.

24.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대단한 것이었다. 적당하게 인심 쓰는 척하려던 상관들이 기겁을 하고 뛰어왔으니 말이다. 바울은 가끔 이 로마 시민권을 들먹였고 그 때마다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위력적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택(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 자랑삼아 말할 때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을 뿐, 결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했을 뿐이다. 본문에서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25. 본 장에서 '우리'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보자. (이 질문은 읽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9절: 마케도냐 사람,

20, 21절: 로마 사람들,

10(×2), 13, 15, 16, 17절: 이 글의 저자 누가를 포함,

28, 37(×3)절: 바울과 실라

이 표현이 나타나는 곳에는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직접 목격한 일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이 표현이 다시 나타날 때(20:5-15)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나타나는 데 그로 보아 누가는 바울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나 보다.

저자: 시장

자주: 자주 빛으로 염색된 명주 천, 비단

사도행전 17 장

1. 16장에서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저희가'라는 말로 바뀌었다. 1인칭 작가적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뀐 셈인데 누가 빠졌길래?

누가

2.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누가 우리에게 시킨 것인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에 따르는 시간, 금액, 방법은 누가 시킨 일인가? 이 질문을 바울에게 했다면 그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자기 규례(17:2) 안식일의 회당 모임의 시간이나 방법도 물론 바울이 정한 규례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규례이다. 그럼에도 자기 규례라고 말하는가? 자신이 그 규례를 따르기로 정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주어진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해도 평생 그럴 수는 없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인격적 동의가 주어져서 실천될 때 그것을 자기 규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에 따랐음을 기억하자. (눅4:16) 언어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내가 태어난 사회의 언어를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루 속히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 데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진정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펴놓고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는 사람도 물론 있으니. 그러나 가장 요긴한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3), 예수와 부활(18)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시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4. 보(保, 지킬 보)를 받고 놓으니라는 말은 보석금(석방하는 대신에 내는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는 말이다. 야손의 죄목은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로마의 충성된 식민지 백성이었나 보다. 어쨌든 반역죄로 잡혔다가 이 정도로 풀려났다는 것은 무죄임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야손이 심문을 당하고 조서를 꾸렸을 것이다. 죄가 뭘까 안 될까?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일단 다른 왕을 섬긴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왕이 누구냐에 달렸다. 그 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면 죄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권세도 힘도 가지지 않아서 가이사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은 사람을 왕이라고 했으므로 무죄!

5. 뜰에 맞아 죽었다고 버려두어도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야손이 큰 일 없이 석방이 되었는데도 그 밤에 도망을 해야 했을까? 다음 구절을 참고해서 야손이 보석금 외에 또 어떤 판결이나 조건을 받고 석방되었을런지 추측해 보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됴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살전 2:7-9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살전 2:17-18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테를 보내노니...' 살전 3:1-2

아마 다시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석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 다음 사역지 아테네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하던 마케도냐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방 즉 아가야 지방이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정말 집요했던 모양이다.

6. 일찍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고유명사들을 우리말로 옮겼는데 나중에 성경과는 상관없이 다른 글들을 번역하면서 같은 고유명사를 독자적으로 다시 번역함으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말이 성경에는 더러 있다. 가이사(시이저), 탈란트(텔런트), 다메섹(다마서커스), 다윗(다비드), 베드로(피터), 안디옥(안티오커스)... 등등. 이 본문에 나타난 다음 고유명사들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맞춰보자. 주로 사회책에 나오는 말들이다.

1) 아테네: 당시 헬라 문화의 산실,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 아테네

2) **에비구레오**: 쾌락(*ataraxia*)이 인생의 목표하고 주장한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학파

3) **스토이코**: 이성을 중요시하여 에비구레오 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철학의 일파, 스토아 학파

7. 위대한 설교자이며 저술가였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흥내내려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다. 우리가 본을 보고 따라야 할 위대한 분 중의 한 분임은 확실하다. 그 분의 좋은 책들은 새삼 권하지 않아도 많이 읽고 있을 것이다. 사족.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쓰는 일은 날씨도 흐리고 바깥에서 별로 뛰어다닐 일이 없어서 불가에 앉아 끄고 토론을 즐기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만 진득하니 토론을 즐기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읽고 진도도 좀 나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아텐 사람들은 영국 사람 쪽에 가까운가? 한국 사람 쪽에 가까운가?

영국 사람들: 학문이나 이론에 관심을 많이 가진 점에서. 사변적이지만 오래된 것도 소중하게 여긴다.

한국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를 살피는 것이 가장 각광받는 오락이었으니까. 쓸 만한 데도 마구 갖다 버리는 점에서

8. 아텐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평소 그가 열심히 외치던 설교와는 좀 다르다. 청중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전의 청중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며 따라서 내용도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이전의 청중은 하나님(주약)을 알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대부분을 할애함. 신론(24-27), 인론(28-30), 기독교론(31)의 순서로 설교함,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부터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9. 설교를 시작할 때 청중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서론이 참으로 흥미롭다. 무엇이며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채 모시고 있는 신을 알게 해 주겠다: 서론으로 끌려고 텔레비전이나 다른 예화집을 자주 들추는 것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보다 바로 청중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욱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것이다.

10.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만물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현상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 있게 해 두었다. 그런 예를 들어보라.

11. 바울이 둘러보았더니 아텐에 우상이 수없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 많은 우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29)

12.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이 사람들 자체에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인 것 외에 또 하나 이용한 것이 있다면?

아텐 사람들은 스스로 신의 소생이라고 생각했다.

13.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바울의 주장이 아텐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신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섬기는 방법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데 바울이 지적한 아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라.

1)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29)을 2) 손으로 지은 전에 모셔다 놓고(24) 3) 뭇가를 부지런히 갖다 바쳐야 했다(25) 4) 혹시 알지 못하여 노여움을 갖게 할 신도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모르는 신까지 행하고 있다.

14. 베뢰아 사람들과 아텐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 바울을 핍박하지 않고 들으려 한 점

차이점: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인(긍정적인) 자세로 들으려 한 반면에 아텐 사람들은 재미로 혹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

15.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접근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언어로 접근하지 말고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은 결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덮어놓고 인간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강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우리의 죄인됨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이런 순서

를 무시하면 복음은 오히려 역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아덴에서 행한 설교에는 성경에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눈에 띈다. 즉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만 찾아보자.

정하신 사람 = 심판주, 재림주. 그 외에도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만유를 지으신 신,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신의 소생이란 표현도 그런 느낌을 준다.

사도행전 18 장

1. 위대한 학자요 최고의 학문을 익힌 바울이 어떻게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

요즈음 같으면 건축가에 해당하겠는데 유대인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도 유사시에 먹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은 가르쳤다고 한다. IMF를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겠다. 평생 몸 담았던 직장에서 나오자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덜했다.

2.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잘 도와 준 셈이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심하게 배척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결국 유대인들의 배척이 이방인 선교를 앞당기게 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준 유대인들?

3. 장막 제조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서울(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민족적인 차별을 받고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되씹으며 다다른 곳이 고린도였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희망보다는 좌절감이 더 컸을지도 모르는 이들 부부가 이곳에서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행복인 것을 아는 사람만 안다.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 아볼로를 불러다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였으니

4. 다음 두 표현 중에 어느 표현이 발음하기가 편한가? 왜 그럴까? 또 누가 남편이며 아내인가? 1)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2)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 2번 발음이 더 편하다. 이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더 많아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이다(18, 29, 롬16:3, 딤후4:19). 1번에 답을 한 사람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공부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 아마 남편은 생업에 더 열심을 냈고 가르치는 일에는 아내가 더 유능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유능한 남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능한 아내가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5. 바울이 말썽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이다. 그 전에는 아굴라와 함께 일하며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다. 이 두 사람이 온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이 때 헌금하여 생활비에 매이지 않고 전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빌4:10-15).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위대한 고백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남긴 것이다. 우리도 이런 후원을 해야 한다. 아니면 받든지.

아텐에서 저희를 기다리며(17:16)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서 의기소침해 있었을 수도 있다. 위대한 바울도 동역자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잡잡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디모데가 전해 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답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전, 후서이다.

6. 바울이 업이 같은 아굴라와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가?

아굴라와 함께 일하며 거주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로 회당에서 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 복음을 전하는 주 무대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다는 뜻

7. 아텐에서는 겨우 몇 사람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얼마나 결과가 좋았는가?

회당장 그리스보,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

8. 어느 정도는 의기소침해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열심을 내었더니 유대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그래서 그 동안 강론하며 권면했던 그 유대인들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데 왜 그 때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는가?

그리스보의 개종으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9. 다윗이 사울에게 꺾이다 못해 외국으로 망명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돌아가라는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도와주시지 않았다. 도와주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에 수 천 명씩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바울을 격

려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혹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관여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몰라도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라는 것이다. 특하면 진정 쫓아오는 새색시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지만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 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 하자.

10.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고 말한다. 내가 전도를 했다? 내가 했다고?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전해도 헛일이라는 말이다. 결국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더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바울이 믿게 했다고기보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통로인 것을 잊지 말자.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말자.

11. 우리나라도 민주화되면서 달라진 것 중에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시위가 무척 많아졌다. 특히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은 집단민원을 무시하기 어려워진 만큼 시위는 더 많아졌다.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심정으로 재판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재판에 밀어부쳐 본 모양이다. 처음 오는 선생님에게 억지 질문을 던지듯이, 신임 갈리오 총독의 대답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신임 총독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바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유대인들이 무리한 재판을 시도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을 재판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그 때는 빌라도가 예수를 무죄라고 선언하고 손을 빼려고 애쓰다가도 민중의 압력에 굴복한 점이 다르긴 했지만, 결국 나중이라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재판을 걸 수 없게 되어서 전도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12. 회당장의 이름이 그리스보였는데 소스데네는 또 누구인가? 왜 회당장에게 매질을 하는가?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인 경우도 있었다. 혹은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자 회당장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일 수도 있다. 하여간에 그리스보의 후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을 पि박하는데 더욱 앞장섰을 것이고 이번 사건의 주동인물이었을 텐데 참패를 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엉뚱한 분풀이를 한 게 아닐까?

13.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꺾었다는 말은 그 서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서원이 있으면 기한을 정해두고 머리를 꺾지 않는 나실인의 삶을 살다가 기한이 차면 머리를 밀고 다시 보통 사람의 삶으로 돌아온다(민6장 참고).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다가 이제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전도여행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14. 고생스러웠던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도대체 3차 전도여행의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23절:

15.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와 3차 전도여행은 왜 이렇게 급하고 간략하게 기록해 버렸는지 이상하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열심히 선교한(씨를 뿌린) 이야기라면 이 다음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

그 교회들이 자라는 이야기: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말한다.

16. 주의 도를 알아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말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알되 요한이 증거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열심히 증거한 내용을 생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강림

17. 바울도 그러했지만 특히 아볼로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흔적도 없는데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성경에 능한 자였기 때문: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알아야 한다. 알고 실천하지 않고 머리만 긁어져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람이 두려워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아볼로의 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고전3:6-7에서 자기와 같은 역할이었다고 말한다.

18.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모른다. 다만, 전도여행도 열심히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교사였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바울과 협력하는 것이 옳았다.

사도행전 19 장

1.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부족함 혹은 잘못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함,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 아볼로가 잘 모르고 그렇게 가르쳤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란 말은 에베소에서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고린도에 가 있을 때란 말이다. 아볼로가 나쁜 놈? 아니다. 아볼로는 자신도 다 알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가 해 둔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일하기가 쉬웠다. 주일학교 교사도, 영어교사도 다 알고 난 뒤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할 일이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까지 배워서 나중에는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 여기 이상의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조금만 배운 농땡이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농땡이 치다가 바울에게 불잡힌 모양이다.

2. 바울이 만난 에베소의 이상한 제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는 교인들하고 비슷하다. 스스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요한의 가르침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 교인이 지금도 많으니 할 말이 없다. 눅3:16, 요1:33을 참고 한다면 이들이 농땡이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말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얘기했지만 이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들은 적이 없단다.

눅3:16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 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1:33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시기로

3. 지금은 아무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미약해진 것일까? 초대교회에 부여졌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중단되었는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성도의 가슴 속에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감격으로만 존재하는가?

4. 에베소의 회당 사람들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더 붙잡아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리라고 하고 떠났던 곳인데 다시 찾아와서 석 달 동안이나 강론하며 권면하는 데도 마음이 이렇게 굳은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궤방을 놓은 것이다. 어디에서나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일부가 그렇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란 점을 알고 한 두 사람의 반대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어린 양을 늑대와 분리시킨 셈이다.

5. 설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까? 회당에서 배척하던 그 사람들도?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온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하여졌음을 의미한다.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만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며 왜?

은장색 메메드리오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짐

6. 남자에게 무슨 앞치마가 있었을까?

장막을 만들 때 앞에 두르는 것, 손수건도 일을 할 때 쓰던 것

7. 부흥의 두 가지 원인은?(1-20)

바울의 가르침: 2년 동안 매일 가르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는지 보라. 말씀에 근거하여 생을 바친 바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8.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까?

병든 사람 집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 주었을 것: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을 것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이었다. 베드로나 바울에게도 한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9.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들에게 혼이 난 얘기는 정말로 재미있다. 이 귀신들 정말로 똑똑한 귀신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는가? 두렵다면 왜 두려운가?

혹시 이 귀신들이 날 보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 수 있을 만큼 빨리 훌륭한 예수의 제자가 되란 말이다.

10.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에 혼이 난 이야기는 주술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에베소에서는 혁명과 같은 충격파를 던진 셈이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자세히 보면 이 와중에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 누구인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향: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습성에 따라 여전히 마술을 행하거나 동조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생활 원리는 예전의 생활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너무도 많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11. 마술하던 사람들이 태워 없앤 책값이 은 오만이란단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니가 노예 1,667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일이 필사한 책이었으니 지금보다 더 비쌌을 것을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었을 것이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불만한 구경거리였음에 틀림없다.

12.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다 이루어지면 성취감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목표가 사라진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바울은 일이 다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나 보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무엇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여기서 마음을 정한대로 진행이 된다. 즉 이 부분은(21-22) 앞으로 될 일의 요약인 셈이다.

13.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는데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오랫동안 싸우고 투쟁하다시피 해서 겨우 천안으로 신대원만 옮겼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것과 이유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로마를 정복하면 거기서 사방으로 복음이 뻗을 수 있으므로, 선교의 효과가 가장 클 것이므로, 서울을 점령해야 다른 곳도 쉬울 테니까.

14. 에베소는 항구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을 중심으로 번창한 도시였다고 하는데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가령 불국사와 같은 동네가 있었다. 여행자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팔아서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과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다. 참 별일이 다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찬바람을 맞는 업종이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남의 생업을 망쳐 놓았으니. 김 강자라는 여자 서장이 부임하자 서울의 창녀촌에 손님이 없단다. 그 곳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은 어떡하지? 괜한 걱정인가?

15. 이 와중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권하다니? 바울의 가르침을 극도로 싫어하는 무리들이 이 소요를 통해서 바울에게 결정타를 한 번 날려 보려고? 데메드리오가 군중들을 선동한 이유를 참고해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에 세우려 한 이유와 군중들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 보자. (장사꾼들이 보기에는 그 두 무리가 같은 무리라는 말이다)

자신들은 바울의 무리들과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우상을 배격해서 장사를 망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군중들이 볼 때 같은 무리라는 것이다.

16. 에베소에는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모체가 된 도시였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은 이 우상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는 말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는 열심히 전했지만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해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중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쉽게 진정된 것도 '도적질하거나 휘방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신상의 목을 자른다고나 동네 어귀에 세워놓은 장승을 톱으로 잘라버리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증거는 없어도 오래 기독교인의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면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열심히 있으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 핏박을 각오하고라도 우상을 때려 부셔야 한다? 용감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결코 현명한 짓은 아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용기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대로 사는 일에 더욱 몸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울의 가르침(고전7:20, 엠6:5)이었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차츰차츰 노예제도가 폐지되어간 사실을 참고로 삼으면 될 것이다.

분란(紛亂): 분잡하고 떠들썩함 = 분요(紛擾)

감실: 작은 우상을 놓은 전각

은감실: 은으로 작은 전각을 만들어 장신구처럼 이용한 것 (부적처럼 사용함)

사도행전 20 장

1. 다음 두 구절은 바로 이 여행 때에 있었던 일을 가리킨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행이 이렇게 많은지, 현실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바울의 어떤 점이 위대해 보이는가? (고후 8, 9장도 참고)

롬15: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고전16:1-4: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각 교회의 연보를 각 교회의 대표자가 직접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기 때문: 자기가 다 모아서 가져가서 생색을 낼만도 한데... <→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재정 문제에 교역자가 관여 하지 않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아니 큰 문제만 관여 하고 사소한 것은 제직회에 일임하고 기도와 말씀에만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2.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까지 돌아보았으면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돌아오는 것이 이치상 적합하다. 헬라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간다는 것은 비유권대 항아리 입구에서 건너편 입구로 날아가는 셈이 된다. 그런데 육로로 돌아온다는 것은 항아리 전체를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건너편 입구에 도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될까?

이전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이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자. 열흘이 걸릴지 스무날이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배안) 내에서만 수비해야 한다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피해갈 수 있는 위험도 신양이라는 만용을 부릴 필요는 없다.

3.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순회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날짜나 시간까지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7-16). 왜 그럴까?

이 글을 쓴 누가가 다시 일행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즉 누가 자신이 직접 겪은 부분이다: 2차 전도여행 도중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누가가 일행에 들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빠져서 빌립보에 남아 있다가 다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니 일행 중에 합류했던 모양이다.

4.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는가?

전도를 위한 유대인의 모임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떤다고 그것이 오늘의 '주일'이다.

5. 유두고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잠에 관한 일가견이 있다. 아마 1971이나 72년일 텐데 부산에서 7박 8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기차에서 자고 집에 와서 자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반주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가만히 들여보니 목사님의 축도 소리였다. 깜짝 놀라 폐회송만 치고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면 우습기도 하고 낯이 뜨겁기도 하고 그랬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몇 장 부름시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주자란 녀석이 꿈쩍도 하지 않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다. 그제서야 잠이든 채 저러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고 그냥 찬송을 다 불렀단다. 찬송을 다 부르고 광고가 끝날 때까지도 요지부동이더라. 그런데도 예배시간에 잤다고 아무도 꾸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즐거워하시는 것이다. 왜 그럴까?)

- 1) 예배 시간에 자지 마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 2) 바울의 설교에도 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설교를 좀 못한다고 그렇게 야단이야? 설교 못한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 3) 무언가 특이한 사건을 하나 적어서 튀어 보려고.
 - 4)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다.
- (수양회 가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다)

6. 아무도 유두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가 졸고 있는데도 더 오래 강론을 계속한 바울이 잘못 아닐까? 적어도 유두고를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유두고의 졸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보아야 옳다. 왜 졸았을

따?

피곤하니: 어쩌면 종일 일하느라고 녹초가 된 채 집회에 참석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바울에게나 성도들에게 이 일이 크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밤새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다. 바울도 자신의 무리함을 인정한 셈이 아닐까? 유두고가 떨어지기 전에는 '강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는 '오래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듣는 사람 생각도 좀 해 가면서 해야죠.

7. 유두고는 왜 창에 걸터앉았을까? 정답이 없는 질문이므로 가능성을 이것저것 따져 보기 바란다.

장소가 비좁아서, 신선한 바람을 쐬려고, 교방져서?: 아마 좁은 장소 탓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모임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도중에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8. 일일 수련회를 한 셈이다. 수련회 도중에 사고가 생겨서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났을까? 떡을 떤데 모였다는 말은 식사의 의미보다는 예배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주일 오전에 모여서 이튿날 새벽 해 뜰 때까지 (무박 2일?)

9.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드로아와 다음 행선지 앗소는 위치상으로만 본다면 포항과 구룡포 사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왜 배 타고 가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도보(육로라고 할 수 있음)로 가는가?

배로 먼저 보내도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는 호랑이 꼬리를 빙~ 돌아서 구룡포로 가고 육로는 꼬리를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10.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는 말이 당부지 사실상 유언(17-38)이다. 그런데 유언을 하면서 무슨 자량이 그렇게 많은가? 겸손, 눈물, 인내(주를 섬기기 위해),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함, 목숨도 아끼지 아니함,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아니함, 회개와 믿음을 증거,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움. 왜 이렇게 자량을 쏟아 놓는가?

내가 모본을 보였으니 제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11.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불러서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무슨 당부를 했는지 동사 두개를 먼저 찾고 그 동사의 목적(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1) **삼가라:**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도록. 왜?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2) **(일깨어) 기억하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주라 - 이 일에 자신이 모범을 보였음

12.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잘 가르치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성도들을 가르쳐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30):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만 살아나게 하고 자신은 철저히 빠져나와야 한다. 하나님보다 선생님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 자기 패거리를 만들거나 자신의 풀마니를 만드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13.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것을 자신의 표현대로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21)

14. 바울의 당부를 받은 감독들은 바울의 말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울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범을 잘 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완전히 바울 때문만은 아니다. 그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바울의 말 속에서 찾아보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의 형제, 혹은 주일학교에서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15. 성령의 인도하심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고난이 있을 것

16. 성도들에게 던지는 홍익한 이리와 싸우는 가장 최선의 무기는 무엇인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1 장

1.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지명들 중에 다음 지명들은 우리에게 낯익은 곳이다. 일반적으로 무엇이 라고 부르는가? 1) 뢰니게, 2) 구브로, 3) 수리아

1) 뢰니게= 페니키아, 2) 구브로= 키프로스(사이프러스), 3) 수리아= 시리아

2. 돌아오는 여정은 다음과 같다.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고스, 로도, 바다라, 구브로(왼편에 두고 = 오른쪽으로 항해함, 구브로의 남쪽으로 항해를 했다는 뜻임), 수리아의 두로, 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1) 에게해라는 좁은 바다에서 지중해라는 큰 바다로 나와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에게 해에 속한 지명일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바다라에서 탔다(1-2): 배야 다 건너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이 표현이 사용 된 것은 큰 바다를 건너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완행이 아니라 지중해 를 가로지르는 직행이었다. 그래도 5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2)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는데 왜 베니게에 도착했다는 말이 없지?

베니게란 팔레스타인의 북쪽인 두로, 시돈, 플레마이를 포괄해서 가리키는 말이다. 두로가 가장 중요 한 최종 기착지이고 시돈과 플레마이는 보너스격으로 조금 더 간 곳이었던 모양이다.

3. 오순절 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도 않고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작별 인사를 했던(20:16)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렀다. 갑자기 웬 여유?

바다라에서 두로로 오는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축되어진 것 같다.

4.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러도 될 만큼 여유가 생긴 탓도 있지만 이 배가 짐을 내리고 싣는데 그 만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교제를 나누고 헤어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플레마이에서 머무는 하루 동안에도 형제들을 찾아서 안부를 묻는 이런 바울 을 보면 어떤 학생이 생각나는가?

눈곱 만한 여가 시간도 알뜰살뜰 하게 공부하는 학생 - 바울의 철저한 여가 선용이다.

5.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이다. 다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텐데 왜 제자 들이나 아가보의 생각이 바울과 다를까?

성령의 인도하심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주어 진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체포될 것이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것을 알고 반응이 달랐을 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항상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결단이 요구 된다.

6. 그렇다면 두로의 제자들이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가이사랴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한 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가려는 바울을 말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한 베드로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보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꾸준한 위로와 격려 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만 먹고도 해보지 못한 일: 선교사로 간 친구에게 가끔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일, 군에 간 친구나 제자들에게 가끔 소포를 부치는 일

7. 교회의 법도 항상 획일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쉬운 예를 든다면 술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교 회를 나오고 싶다. 다 끊고 나오라고 한다면 잘못이다. 차차 끊기로 하고 나오세요? 조금 낫다. 상 관없으니 당장 나오세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술, 담배가 무슨 장애 가 된단 말인가? 그걸 보고 장로나 집사가 술 마셔도 괜찮네 한다면 이 또한 자격없는 사람이다. '술, 담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오세요' 이 말과 가장 느낌이 통하는 말을 찾으시오.

25절: 이방인에게는(초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 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덕이 되니까 율법의 규 례대로 하자는 뜻이다.

8.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다 지내는가?

흔히 말하듯 덕을 위해서 행하여야 하는 일도 많이 있다. 법에 저촉되는 일만 피하면 된다는 사 람은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 하고 싶지도 않 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9. 이렇게 속 시끄러운 예루살렘에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싶어 했을까?

고기가 뛰노는 물을 보면 낚시꾼은 가슴이 뵈단다.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전직 교사는 눈물이 난다. 각처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

그 동안의 성과와 헌금을 전함으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인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마음: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은 사람이 많을 정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진다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많았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낸 헌금을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이 빨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0. 드로비모는 누구인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경향이 가끔 있다. 아시아로부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를 말한다) 온 유대인들은 눈이 빠졌던 모양이다. 어떻게?

드로비모는 헌금을 전하려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20:4). 예루살렘에서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다녔다. 성전 안에는 바울 혼자 있는데도 드로비모가 옆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으니...

11.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력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신 일(19) 힘써 노력하고 애쓰자. 그러나 알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감사를 드리자.

12. 바울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바울은 보고를 잘 했음을 알 수 있다. 어째서?

보고를 듣고 바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간증이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찬양 말이다.

13. 한국 사람은 가족이 함께 물에 빠졌을 때 부모, 처, 자식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건질 것이냐는 물음에 거의 대부분이 부모라고 답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사람이 핵 변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을지라도 우리의 많은 것은 아직 그대로 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변해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변하지 않은 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하나 찾아보라.

예수 믿으면서 율법에 열심 있는 자(20): 부모보다 부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소홀하란 뜻은 아니다. 소홀히 여겨지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다. 부모는 여전히 중요하다. 부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14. 바울을 오해하거나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찾아보자.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27):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죽이려는 주동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율법에 열심인 자(21)

천부장(38):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당시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쓸 수 있는 헬라 말을 하다니?

15. 한국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사람을 쫓아내면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 그런 느낌이 담긴 표현을 찾는다면?

문돌이 곧 닫히더라(30):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흥분한 군중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와 바울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꼭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쉬게라도 해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 뭐가 가장 안타까운가?

이왕지사 체포되어 간다 해도 그 전에 죽도록 두들겨 맞은 것 ↔ 바울은 이런 기회마저 복음을 위한 변명의 기회로 삼았을 뿐이다. 본인이 괜찮다는 데야...

17.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왜 자기 가 큰 도시의 시민이라고 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칠만한 것이다.

사도행전 22 장

1.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피우는 것이 오해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더욱 증오했다는 것: 바울을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창한 히브리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일단은 동족의식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말은 구약의 히브리말과 다르다. 포로 이후에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일반적인 언어는 아람어였다. 이 때 바울이 사용한 히브리어 방언도 사실은 아람어다.

2. 바울의 출생지는? 성장지는? 교육은 어디서 받았는가?

길리가아 다소: 부유하고 엄격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것으로 짐작

이 성: 다소? 예루살렘? 그 성이 아니고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 같다. 13살에 가말리엘의 문하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모양이다.

가말리엘의 문하: 최고의 존경을 받던 랍비였으니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다.

3.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변명하려는 바울은 용어나 내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했다.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한 것들을 다 찾아보자.

부형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함:

같은 언어(히브리 방언을 사용함) 객지에서 고향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는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자랐고(부러움의 대상),

우리 조상, 혹은 유대인이다.

엄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함

하나님께 열심하는 자(=같은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4. 바울을 둘러 비춘 빛은 바로 예수 자신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한 분이 있는가?

요 1:4, 9

5. 똑같은 소리일 텐데 바울이 듣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왜 듣지 못하는가? 혹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단 10:7: 이상을 다니엘은 제대로 보고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함 단지 두려워서 숨기만 하였음,

민 22:21-35: 발람 선지자와 나귀

왕하 6:14-17: 엘리사와 그의 사환

사람의 눈과 귀는(모든 감각기관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듣고 볼 수도 없으며,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라 보이지 않기도 한다. 더구나 영적인 것은 더더욱 모두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다.

6. 예수님께서 실컷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사울에게 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왜 아나니아에게 대신 전하게 하시는가? 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친히 눈을 뜨게 하셨다면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가? 바울이 독단에 빠져 혼자 열심을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바울은 동역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아나니아를, 아나니아보다 더 존경받는 다른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7. 유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율법의 수호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것: 뿌리 깊은 선민사상과 어긋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향하신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함.

8. 로마 시민이라는 이 한 마디는 정말 위대한 발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천부장 아니었을까? 그 천부장이 바울의 그 한 마디에 두려워할 정도였으며 그것도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잘 써먹었는가? 잘 안 써먹었는가?

개인적이거나 동족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쓴 일이 없다. 부당한 대접을 당했을 때만 그것도 로마인들을 상대로만 사용한 셈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기를 자처한 그가 로마 시민으로써 로마 군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다니지 않았다는 것도 존경하고 싶은 것이다. 무력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한때 융성해 보이지만 끝내 효과적으로 복음화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의 전도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보라. 한국은? 우리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은 나라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온 것이 아닌란 점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비교적 근심하게 성장하게 된 중요한 동기이기도 하다.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전도하는 것이다.

9. 오랜 전도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예로운 휴식이 아니라 모욕, 구타, 체포였다.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났을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한 마디 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쌍해 보였을지라도 본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 이 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

1) 전도 대상자를 찾아다녔지만 천부장이 다 불러다 줌(30); 평소 같으면 한 두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높은 어른들을 단체로.

2) 높은 어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천부장이 보호함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명이요, 오락이요, 삶의 목표였던 바울이니 이런 고백을 드렸음직도 하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자신이 처한 모습은 비록 불쌍한 듯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만이 그의 기쁨이었을 것이다(빌 1:18). (20장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 설교, 21장 가이사랴에서 형제들의 만류)

사도행전 23 장

1.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가?

회대의 죄인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므로: 아나니아를 위시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가?

재판을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흥분한 것은 잘못이다.

3. 회칠한 담이여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쓴 표현인가?

(회칠한 무덤과 비슷하지만) 다른 곳에는 본 적이 없음: 회칠한 무덤은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회칠한 담은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기 쉽다는 뜻.

4. 바울도 자신의 말이 과격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단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었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다. 자신도 위의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왜?

자신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5).

5.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더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주로 율법적인 문제로 예수님에게 따지기를 좋아한 탓에다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혹독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당시에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문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내세적이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사두개인들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믿지 않았으니 현실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일에 동참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했기 때문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과 싸우게 되었고 드디어 바울을 무죄라고 옹호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기 때문인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자신이 심문을 받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당에 출입을 했고 성전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를 전했는데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엮으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노라고 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리새인들도 들어보니 바울의 생각이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바리새인들 중에도 바울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7.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도 이렇게 험난한가?

그렇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몇 년씩 사는 것이 아니다. 속히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그런 분을 따르는 길이라면 당연히 험하지 않을까? 희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힘든 길을 묵묵히 따라주는 바울이 얼마나 든직한 아들이었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이 상황이 바울에게 힘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바울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처음에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더 큰 욕심이 생긴 것이다. 꿈이 자라났다는 말이다. 전도를 하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9. 결과론이지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5년 정도는 바울이 갇혀 있었는데...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랬을까?

10.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고도 불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무식한 열심일 뿐이다: 옛날의 바울이 꼭 그랬는데. 열심에 지혜가 더해지지 않은 결과다.

11.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길에서 죽이려면 로마 군인들을 해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 1) 뒷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시도하는가? 하기는 뒷일을 조금 염려하
기는 한 것 같다. 2)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1) 자신들의 죽음은 각오한 것 같다.

2) 공회(아마 산헤드린: 유대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정말
위대한 애국자야! 지혜 없는 열심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지혜는 있었네!

12. 이렇게 극렬하게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굳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을 위
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에게 그래도 꽃가마라도 태워서 보내지 않고? 이생에 자꾸 집착하는 우리
의 못된 버릇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이다.

13. 22:27-29에 보면 이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대단히 두려워했다. 호의인
지 두려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바울의 생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울에게 유리한 천부장의 반
응을 찾아보자.

바울의 생질의 말을 조심스레 들어주고 그대로 믿은 것:

손을 잡은 것, 물러간 것, 조용히 묻은 것 (비밀스럽게 들어준 것)

14. 성경에는 바울의 가족관계조차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데 드디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타났
다. 가족관계에서 생질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누나(여자 형제)의 아들: 바울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므로 아마 이 누나는 바리새인과 결혼하
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 바울도 이 누나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등등 추측의 근거
가 된 말이다.

15. 바울의 생질이 전해준 말을 들은 천부장의 짓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바울을 보내지 않고 그
냥 그대로 두면 일이 간단할 텐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동원한 군사가 자그마치 470명이면 자기
휘하의 군사 절반이다. 왜 그럴까?

끌치 아픈 혹을 때듯이 탈없이 보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천부장에게 바
울은 뜨거운 감자요 시한폭탄이었다. 자기가 보호하고 있어서 득이 될 일은 없지만 잘못되면 로
마시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는 시도가 집요했음도 알 수 있다.

16.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은 대체
로 사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적절하게 덮어두거나 아니면 잘한 일처럼 꾸미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아닐까? 천부장 루시아의 글에서 그런 점을 찾는다면?

로마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구해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사실은 그렇지 않고 무슨 큰 죄인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심문을 하다 보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정도만으로도 법을 어긴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다(22:27-29).

17. 천부장 루시아도 스스로 바울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석방시켰다가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면
로마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돌아올 것이 두려워 석방보다는 총독에게로 보낸
것 같다. 바울이 무죄라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런 무죄 판결이 또 어디에서 있었는가?

소송의 내용이 유대인의 율법문제일 뿐이었음: 로마는 식민지의 이런 문제는 그 민족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의 법과는 상관이 없었다.

행18:15: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음

18. 로마사람에 대한 재판은 그가 어디 사람인가에 따라 관할권이 달랐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였기 때문에 그의 관할이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에게 보내진 적이 있다(눅23:6-7). 그러니까 황제의
직속령이나 아니면 지방 총독의 속주냐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달랐기 때문에 1) 제일 먼저 묻는 질
문이? 2)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는 이유는?

1) 어느 영지 사람이냐?

2) 자신이 재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 총독의 속주 사람이라면 자신이 재
판을 하지 않고 그리로 보내도 되는 일이다.

1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의 결과만을 따지는 법이다. 비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
만 좋으면 칭찬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비록 결과가 잘못 되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저 주시겠다고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 일을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일인가 즉 동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이다.

환화(喧譁): 크게 외치며 떠들

밤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안디바드리(*Antipatris*): 헤롯이 건설해서 자기의 부친 안티파터(*Antipater*)의 이름을 딴 도시이다. 아마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쯤 되는 곳이라고 추정함

사도행전 24 장

1.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나보다.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를 다 찾아보자.

- 1) 여기 대제사장
- 2) 성령을 속이다 죽은 자(5장)
- 3)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안수한 제자(9:10)

2.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처신에 대해서 한 마디 해보자.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중요한 일이나 해야지. 어쩌면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사람같아 보이기도 한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려고 집사를 세운 제자들의 본 좀 보라.

3. 더둘로라 하는 변사가 나와서 송사를 한다. 변사라는 말은 변호사와 거의 같은 뜻으로 보면 필텐데 왜 변호사라 하지 않고 변사라고 하지?

지금 하는 역할이 변호하는 일이 아니라 고소하는 일이다. 말만 잘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는 변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4. 변사니까 말을 잘 한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도 더둘로에게 한 수 배우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나?

칭찬부터 한다: 벨릭스는 음탕하고 잔인하여 학정을 베풀어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로마로 소환되어 물려났다. 그런 총독에게 이렇게 아첨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거짓말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다(8).

5. 아무리 변사지만 없는 말까지 지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고소할 게 별로 없지만 없는 것조차 없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둘러대는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대강 여짜옵나니...

6. 더둘로의 고소내용은 세 가지인 셈이다. 천하를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자. 그렇다면 바울을 부를 필요도 없이 무죄다. 여러분이 재판장이라 치고 더둘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 보라.

- 천하를 소요케 해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느냐?
-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무슨 사고를 쳤느냐?
- 성전을 더럽히려 했지 더럽힌 것은 아니네?

7. 바울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더둘로의 말을 빌어서 증명해 보자.

염병(5): 복음이 전염병처럼 빠르고 무서운 기세로 퍼져 나갔음. 옛날의 흑사병(페스트)과 같은 전염병이 퍼지면 한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지나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음을 기억하자. 요즈음 전염병이라는 말과는 느낌이 엄청나게 다르다. 오죽하면 욕으로 다 쓰였겠는가? (이런 염병할! 처럼 말이다)

8. 촌철살인이라고 했던가? 더둘로는 긴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벨릭스가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용어를 두 개나 사용하고 있는데?

염병, 소요: 총독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다. 이걸 방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대 임무니까. 그에 비하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표현은 소요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에 해당할 뿐이며 소요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더둘로의 의도는 바울을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9. 변사 더둘로에 비하면 바울은 전혀 아부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바울은 변사보다 말을 더 잘했다. 왜 그런가?

바울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고 더둘로는 없는 말을 지어내야 할 판이니.

10. 바울의 변호 요지는 두 가지인 셈이다. 즉 예루살렘에서는 고소당할 만한 일을 저지를 ()도 없었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

시간

11. 벨릭스는 나쁜 사람이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도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다니. 천부장 루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사실은 없다. 왜?

바울을 보내며 쓴 글에 이미 자신의 입장을 다 밝혀 놓았다. 무죄라고: 본인 스스로도 무죄를 인정했을 것이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면회를 허용한 것으로 보아(23).

12. 바울이 돈이 많은 티를 냈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구금을 해 두다니... 벨릭스가 사람을 잘못 짚었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그런 뇌물을 줄 사람인가? 벨릭스가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한 이유가 있을까?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가져온 구제금이 꽤 많았을지도 모르고 벨릭스도 그런 소문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

13. 벨릭스도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지만 바울도 참 눈치 없는 사람이다. 벨릭스의 마음에 좀 드는 이야기를 해서 빨리 풀려날 생각은 안 하고 겁만 주고 있으니 말이다.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두려워한 것과 바울이 평소에는 십자가의 도 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전부 벨릭스에게는 찔리는 대목이다: 복음도 상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포장을 바꾸는 기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벨릭스는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적절한 가르침이었고 벨릭스도 인정을 했지만 끝내 돌아서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14. 이태란 2년이라는 말이다. 죄 없이 2년이나 갇혀 있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에 온 그 이후 지금까지 바울은 너무나 바빴다. 죽을 위험을 수 없이 넘겨가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마땅히 편하게 쉬어야 한다. 어찌 보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쉬게 해 주셨는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그가 쓴 많은 편지 중에 일부는 이 기간 중에 써진 것도 있을 것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쓴 누가가 이 때 바울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준비했을 것이다.

변사(변호할辯士): 입담이 좋아서 말을 잘 하는 사람

송사(訟事): 소송, 백성끼리의 분쟁을 관(官廳)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함

처결(處決): 결정하여 처분함

시방(時 方): 지금

사도행전 25 장

1. 4절을 직접 화법으로 고쳐 보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구류되어 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한다.: 이 말은 정중하게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것

2. 바울을 죽이자는 이 사람들 참 지독하다.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또 바울의 고소사건부터 시작하다니...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는 야구 격언이 있던데 바뀐 총독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앞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명이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지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벌써 이 년이 지났다. 좀 수그러들 만도 한데

3.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걸 질문이 이상한데? 자기가 재판하면서 같이 가서 받겠느냐? 여기서 받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혹은 베스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자신이 재판관인 로마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석한 상태에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겠느냐는 말이다. 20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율법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다.

4. 지난 번 소송 때는 변사 더들로를 데려다가 소송을 하더니 이제는 작전 변경인가보다 무슨 작전인가?

인해 전술(?) 없는 죄를 있다고 우기려면 전문가 한 사람보다는 때거리로 몰려와서 세를 과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요즈음 우리나라 사람들 데모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5. 유대인들이 무슨 죄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지 바울의 답변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모독했다)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다) 앞의 두 항목은 재판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것은 소요, 선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실도 아니지만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다.

6.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는 것은 기원이나 애원이 아니라 법률용어다.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상소하겠다는 의사표시다.

7.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상대방에게 슬쩍 넘겨버리는 야비한 짓거리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할 수도 있는 듯이 말하지만 실제로 석방하지도 않을 것이며 석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에게 떠넘기는 말은 무엇인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제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참고로 이 때의 가이사는 네로였다. 네로는 악명이 높지만 초기에는 선정을 베푼 황제였다.

8.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해서 더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베스도도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이지 쓸데없는 말이 많다. 그가 한 말 중에 도무지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서 심문을 받겠느냐? 라는 질문: 재판하는 사람이 죄수에게 물어가면서 재판하나? 벨릭스가 쓸데없이 자주 말을 거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9. 바울은 한시바삐 풀려나서 로마로 가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다(19:21, 23:11). 그런데 전혀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긴 해도 벌써 2년이나 갇혀 있었다. 총독이 바뀌기에 혹시나 희망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하는 투가 여전히 그 놈이 그 놈인 게 쉽게 석방될 것 같지가 않다.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생각해낸 좋은 방법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 죄수로 호송되어 머나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되었을 때 군인들이 죄수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전부 죽이려고 한 적이 있음)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동시에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10. 대제사장들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유죄판결이 나도록 은근히 압력을 행사했거나 부정한 수단을 부렸음을 짐작할 만한 증거를 벨릭스의 말에서 찾아보자.

15절: 정죄하기를 청하거늘: 단순하게 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닌 듯함

11.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두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다. 가령 지금과 비교한다면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전세계가 하나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

었다거나(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음) 잘 정비된 도로망이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렇다. 그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본문에서 하나를 찾아보자.

로마의 법(16) 바울이 로마 시민권 소유자로서 어려울 때마다 법의 보호를 잘 받은 셈이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법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으나 비교적 법에 의해 질서가 잡힌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로마의 발달된 문명은 바로 법률과 건축 부문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12. 베스도가 아그립바 왕에게 하는 말대로라면 바울은 당연히 무죄다. 법원이려면 바울이 무죄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할까?

두 항목은 심판대상이 아니며 가이사에게 반역죄는 증거불충분이다.

13. 당대의 내로라하는 사람은 다 모였다. 총독 베스도, 왕 아그립바, 기타 성 안의 높은 사람들. 이 앞에서 바울은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한다. 짜증이 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 조금 있으면 황제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크게 위의를 베풀었다는 말이 영어의 *fantastic*이란 단어로 번역되는 말인데 으리으리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곳에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기쁨이었다.

14. 베스도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다. 부임하자마자 임지의 유지들이 온통 들고 나서니 무시할 수도 없고(이들의 불만을 많이 사면 자신이 잘릴 위험도 있다) 그렇다고 무죄한 사람을 죄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에게 좀 억지지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보겠느냐고 물었다가 되레 바가지를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베스도 자신이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있으니 찾아보자.

마땅한 죄목이 없어서(26-27): 명색이 총독인데 황제가 보기에 뭐 이런 것조차 알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보냈느냐는 말이 나오면 자신이 무능한 결로 찍힐 판인데 그럴듯한 상소문을 써야 한다. 그래서 아그립바가 유대 사회를 잘 아니까 심문을 해서 제대로 된 죄목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다.

도임(到任): 부임, 취임. 임지에 도착하는 것

미구(未久): 오래되지 않는 기간

위의(威儀): 무게 있어 외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함

사실(20, 查實): 실제로 있었던 일을 조사함

버니게: 아그립바의 누나, 여러 번 이혼을 반복함, 소문이 좋지 못함

사죄(死罪): 죽을 죄

사도행전 26 장

1.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공식석상에서만 해도 벌써 네 번째 변명인가? 짜증나지 않을까?

2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구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는데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느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2. 베스도 자신이 재판해서 끝내면 될 일을 굳이 아그립바에게 기회를 준 이유를 바울의 표현에서 찾는다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에(3)

3.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한 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4.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 즉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연기를 소원하는 것은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면 8절은 이 약속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죽은 사람은 복수이므로 일반적인 부활을 통칭하면서도 부활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즉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말이다.

5.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느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고문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느 말이 고문에 해당하는가?

여러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릇된 열심은 사람을 이렇게 악랄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고생시킨 예는 허다하다.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교 롬 14:23)

6. 단어 공부를 하나 해 보자. 핍박하였고의 핍박하다를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본래 뜻은 '사냥감을 쫓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바울은 자신과 관련하여 이 말을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한 가지는 여기 사용된 '핍박하다'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슨 뜻 혹은 어떤 경우일까? (참고로 바울이 평생에 사냥감을 쫓듯이 쫓아다닌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여기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고...)

빌3:12-14: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쫓아가게 되었다? 좌우간 잘 쫓아다닌 사람이었다. 우리도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니 바울처럼 열심을 내서 쫓아보자.

7. 바울이 새로 생긴 이단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가시채를 밟발질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평생을 먼길히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 마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열심을 내기 전에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살펴보고, 살피면서 열심을 내자.

8. 사도 바울이 회심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나온다. 9장과 22장에 있는데 기록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청중은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헬라인들이었기에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느라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앞의 두 기록과 비교하면 인풋 보아도 1) 생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며 2) 헬라식 표현 방식(일반적인 표현방식과 조금 다른 점)을 하나 찾아낸다면?

1) 아나니아의 이야기: 아마 유대인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주로 헬라인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라서 그 부분을 빼고

2) '하늘에서 보이신' 부분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유대식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이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행22:14에는 '하나님',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9. 바울이 피소된 죄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24:6, 21:28).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울을 잡으려고 한 표면적인 이유가 성전모독이었을 뿐이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 유대인의 풍속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립바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이다.

10. 모세에 관한 많은 성경기사를 읽고 과연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결론을 내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독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모세에 관한 글을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23: 성경은 결코 어느 인간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교사가 아니요,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설교가 아니다.

11. 바울의 변명은 아그립바에게 하는 것인데 옆에 있던 베스도가 거든다. 미쳤다고?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결정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12. 수양회에 갔다온 아이들의 은혜받은 이야기는 주로 설교 도중에 나오는 재미난 예화인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왜 하셨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별로 없다.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놓치고 엉뚱한 것만 잘 기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학생들 중에도 시험에 나올 것은 다 잊어먹고 시험에 안 나올 것은 유별나게 잘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 베스도가 그렇다. 왜?

베스도가 감탄한 것은 야, 저 놈 공부 많이 했구나!, ‘청산유수로다!’ 이랬을 것이다. 논리정연한 달변에 놀랐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에 관해서는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은 베스도는 상대하지 않고 아그립바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다.

13. 바울이 긴 변명을 늘어놓은 끝에 나온 ‘이 일’이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닌 이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가리킨다. 바울이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14. 아그립바 왕이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가? 선지자를 믿느냐는 질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인가?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 내 동생 중에 한 녀석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날 보고 “형, 이거 세뇌 아냐?”라고 물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아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대답하기가 막막하면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한 질문이 이와 성격이 거의 흡사하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28)’라는 말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라.

세뇌란 단어는 김일성 때문에 나쁜 의미가 된 말이지만(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은 간첩이 자주 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 단어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좋은 분이라면 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세뇌시키고 싶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일찍부터 세뇌가 되어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릇된 공산주의 이론에 세뇌되어서도 평생을 감격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

16. 성중의 모든 높은 사람들과 화려하게 차려 입고 앉은 사람들 앞에서 사슬에 묶인 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도대체 누가 누구를 닮아야 옳을지.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성경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신33:29(집도 없이 정처없이 방황하며 살았을지라도), 합3:17-18(없을지라도), 단3:18(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후6:8-10: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나 외양에 있지 않다.

17. 어차피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베스도는 알고 있었다. 단지 가이사에게 보내야 하니까 그럴듯한 죄목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아그립바에게 한 셈인데 아그립바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말려들어갈 뻔 했다.

가시채: 끝에 쇠나 뾰족한 뼈를 박은 막대기 형태의 채찍일 것 같다.

사도행전 27 장

1. 드디어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해서 떠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했던 그의 꿈과 기도가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로마를 보게 해 달라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되었는데 기도할 때 무언가 빠뜨린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다. 무엇일까?

로마로 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 가게 해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나 보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왕 로마로 가게 된다면 좀 뼈까뻣한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신분은 죄수지만 대접은 좀 달랐던 모양이다. 자유롭게 친구를 만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의사도 표현할 수 있었으니)

사족: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결혼 조교로 오직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양이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자기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한 토막이다.

집 사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실 줄 알았더라면 본인의 신앙은 물론 온 가정 이 잘 믿는 사람을 달라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돈도 조금 있는 신앙을 달라고 할 걸...

친구: 이 선생이 순수하게 기도했으니 잘 들어주셨지, 고 고트머리를 달았더라면 아마 안 들어주셨을 걸.

2.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 중에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리스다고와 누가: 1절의 우리라는 표현은 누가도 동행하고 있음을 말한다.

론 1:24, 골 4: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도 죄가 없기야 없지만 아리스다고도 죄가 없으면서 바울과 동행하여 함께 갇히기까지 하면서 바울의 수종을 들었으니...,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다. 아리스다고가 칭찬을 받아야 하나 이런 동역자를 둔 바울이 칭찬을 받아야 하나?

3. 이탈리아로 가는 교통편이 대단히 불편했던 모양이다. 요즈음 식으로 말해서 직통이나 직행하는 배가 없었던 모양이다. 배편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1-7 사이에서 다음 표현에 적합한 예들을 찾아보자.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아니라 완행인 셈이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 배를 갈아탐. (갈아탄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고물 직행)

휴게소 자주 들러도 짜증나는데 한 항구에 정박하면 빨리 갈 생각을 않는다: 시돈에서 친구의 대접을 받도록 시간 여유가 있음. 집을 싣고 내리다 보면 며칠씩 걸리기도 함

바람이나 파도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큰 배가 아니다: 역풍을 거슬러 해안으로만 행선(4)

4.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지만 어부들보다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었다. 바울도 공부만 한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항해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의 말과는 다른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좋으면 다방면에 능력이 생기는 걸까?

바울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12절의 '덕')는 점에서 항해의 상식이었을 수도 있다. 고후 11:25, 27에 따르면 세 번이나 파선한 경험이 있으니 바울도 항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우리를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다만 바울에게는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수한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였다.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5. 바울이 여기에서 과동하고 가자고 말했을 때 선장이나 선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날 풍랑에 쫓겨가다가 다시 바울이 말을 했을 때는?

처음 - 우습게 봤겠지. 뭘 좀 알고 하는 모양인데 죄수 주제에 건방지고.

나중 -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실력이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죄수의 몸일망정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바울을 못 알아보고 그의 말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위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을 이렇게라도 격려하고 싶으신 뜻이다.

6. 선주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무시하게 된 셈인데 왜 그랬을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 2가지 있다.

7절: 배가 더디감으로 이미 여러 날이 허비되었으므로 조급한 마음

12절: 미항은 과동하기가 불편함: 조급한 마음과 엉뚱한 욕심이 큰 화를 불렀다. 미항은 조그마한

촌 동네였고 뵈닉스는 큰 항구도시였다.

7. 선장과 선주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야 했다: 아무리 물결이 형편없다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한 마디는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아브람을 가볍게 보았던 바로나 아비멜렉, 이삭을 우습게 본 아비멜렉, 야곱을 만만하게 보았던 라반, 이들 모두가 사실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함부로 대해도 좋은 만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참된 말을 하도록 하자.

단순하게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은 정답에서 제외함.

8.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이와 아주 흡사한 구절이 구약의 어느 성경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도 처음에는 정말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대풍을 만나서 박살이 나는 것이다. (집 나간 탕자도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다고...)

요 1: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함께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함께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9. 적어도 2000년 전 이야기다. 그 당시의 배는 지금처럼 튼튼하지 못했음이 틀림없다. 증거를 본문에서 찾아보자.

줄로 선체를 돌려 감고(17): 터져 나가지 말라고 감았을 텐데 어떤 모양으로 감았을까?

10. ‘말 안 들더니 고시다(고소하다)’! 설마 그랬을라고? 그러나 읽는 사람에게는 그런 느낌이 오는 말이 있다. 어디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19, 2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21, 1점): 이 말의 의미는 책망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1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대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바울에게는 주로 어떤 때 나타나셨는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낙심되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12. 지중해는 조그마한 바다인 줄로 알았는데 그 안에 바다가 여러 개 있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5), 아드리아 바다(27):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짧게 잡아도 거리가 3,000 km를 넘는다고 한다. 지금 세계일주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지중해도 결코 작은 바다가 아니란 말이다.

13. 고물에 닿을 네 개나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권 성경공부라기보다는 본문 이해를 위한 훈련이다.

그대로 두면 해안의 암초에 걸리게 된다. 밤중이니까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일반적으로 닻은 이물에 둔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박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고물에 둔 것이다. 날이 새어 닻을 끌어 해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간다. 차전거를 세울 때 앞 브레이크를 쓰면 위험한 것과 비슷하다.

14. 군사들이 너무 박력이 있어서 탈이다. 힘이 있다는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자주 초래하게 된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둘러 대지 말아야 한다. 이 군사들이 박력이 너무 넘쳐서 실수를 한 일과 할뻔 한 일은?

실수를 한 일: 거루 줄을 끊어버린 것 - 나중에 하선할 때 위험함

실수할 뻔한 일: 죄수들을 다 죽이자 - 거루를 끊었기 때문에 생긴 일, 호송하던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군사들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 그래서 후환을 없애버리자는 말인데 큰일날 소리다.

15.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참 희한한 사람이다. 사공들이 도망치려는 것을 하필이면 또 알아챘을까?

이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니 책임자가 되는 백부장도 보지 못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자신의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도 피해버리는 사람들과는 자세가 너무나 다르다. 그런 관심과 열심 외에도 사물이나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래 대단한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열심마저 가지고 있었으니...

16. 41절의 ‘배를 결매’는 참으로 애매한 표현이다. 차라리 ‘배가 걸리매’ 혹은 ‘좌초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17.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43절: 동행하던 죄수들

22-24절: 276명 전원: 사실은 모두가 바울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내 주위에는 누가 바울인가? 아니면 내가 바울인가? 나로 인해 가정, 사회, 직장, 구원을 얻는 그런 내가 되면 얼마나 복된가?

금식하는 절기: 현재의 9월 20일 경이다. 안전한 항해는 이 때쯤 끝나고 늦가을부터 위험해지다가 11월부터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했다. 아마 니도까지 오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거루: 돛 없는 작은 배, 구멍정인 셈인데 요즈음과 달리 평소에는 배 뒤에 달아서 끌고 다녔다고 한다.

스르디스(沙汀): 바다에 있는 모래톱

하물(荷物): 짐

여망(餘望): 아직 남은 희망

길(길이의 단위): 사람의 키를 이용한 길이의 단위, 20길=20orguias=120feet=37m

이물: 배의 머리

고물: 배의 꼬리, 오래된 물건, 떡에 묻히는 콩이나 팔의 가루

사도행전 28 장

1.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죽을 죄인'이라 했다가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신'이라고 하는 토인들의 생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참 불쌍하다,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토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없이 살다보니 이 간단한 질문을 몇 천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이 토인들처럼 가끔, 상황 따라 이런 저런 답을 내어보기도 하면서,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면서도 선거가 있는 계절이나 입학시험 계절이 오면 용하다는 점쟁이가 설치고, 유명하다는 절에는 사람이 미어터지고, 교회의 새벽기도가 봄비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서글픔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2.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문 것이 독사가 아니라 독이 없는 뱀이거나 뱀처럼 보였지만 뱀이 아니라 나뭇가지가 그렇게 보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는 똑똑하고 남은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교방지기 이를 데 없는 말이다.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무시했던 말인가?

우선 토인들: 원주민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토인이라 해도 독사와 독 없는 뱀을 분간도 못하는 바 보들일까? 오히려 더 잘 알 것이다.

의사 누가: 그리스도인 최초의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더구나 헬라의 고관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글을 썼단 말인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떡하며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3. 바울로 인하여 목숨을 건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의 덕을 보고 있네. 질병을 고쳐준 댓가로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말이다. 이왕 봐주는 김에, 삼년상까지 봐준다는 말이 재격이다. 이 사람들을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점: 배를 탔다가 고생한 점

다른 점: 잠시 고생하다가 요나를 던지고 헤어진 반면에, 끈질기게 바울과 동행함

이유: 요나의 경우에는 목적지가 다르지만 바울의 경우는 같아서

살다보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도 다 겪게 되는 법이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의 옆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옛날에는 군에 가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고관 집 아이나 나름대로 뺨이 있는 집안의 아들을 좋은 부대로 차출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주변에 있는 신병들도 함께 무더기로 차출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덕을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더욱 좋은 것은 좋은 줄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내가 좋은 줄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인가!

4.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일도 없는 것(사실은 물렸는지 물려고 팔에 감겨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병을 고친 것

서신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보다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인 탓에 별로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5.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는 기간은 도중에 과동하느라고 석 달을 보낸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6개월 가까이 된다. 긴 항해 끝에 드디어 다다른 육지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아직도 약 220km 정도 남았단다. 지도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본문을 보고 도착한 항구 이름을 찾아보자.

보디올

6. 무슨 죄수가 이래?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머물며 교제를 했다면 그를 호송하던 백부장과 군대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로 미루어 백부장은 바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총독이 말길 때부터 특별히 당부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으므로 믿고 내버려두었을 것(16절 참고) 그렇다고 바울 때문에 일주일씩이나 머무르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특별히 로마 입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거나 일이 있어서 머무르면서 바울에게 그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불신자들에게서 이 정도 신임을 얻고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 가능한 일이다. 정 안 되면 비슷한 흉내라도 내자.

7.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아마 일행 중 일부는 먼저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8.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온 바울이 새삼스럽게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을까?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법이다. 바울이라도 형제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모두를 위로 할 수 있고 위로해야 한다. 아무의 위로도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위로는 좋은 것이다.

9. 바울을 지키는 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를 다 덮어써야 한다. 어떻게 지켰을까?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20절에 죄사슬에 매였다는 말씀도 비유적인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헐거웠지만 함께 묶인 형태로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

10. 바울은 죽으나 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먼 로마까지 와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가장 원하는 바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도로 유대인들에게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혹시 이틀마저 그 전의 유대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들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적대감이 없음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는 있었을 것이다.

11.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보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바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두고 싶었을 것이다. 유대인 중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말 중에 그들이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담긴 표현을 두 가지 찾아보자.

마지 못하여,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12.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된 것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단순하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사슬에 매였노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 행 23:6, 24:15, 26:6-8

13. 로마의 유대인들은 비교적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는 매일반이지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왜 그럴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전에 만나게 된 동기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회를 시끄럽게 했다가 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충돌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chrestus*라는 사람이 선동하여 자주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14.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강론한 내용의 핵심이 23절에 있는데 두 가지 표현으로 요약해 보자.

하나님 나라, 예수의 일: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 과정이 예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일이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15.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는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나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 즉 변화산 사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란 결국 구약 성경을 말한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을 빼버리면 앙고 없는 찌빵이다.

16. 로마의 법에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18개월 이내에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진행해서 무죄가 선언되었다고 한다. 아마 바울은 무죄로 석방되기 이전까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울의 재판이 얼마나 미루어지고 있었는가?

이테란 이 년 동안이라는 말이다: 누가는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쓰고 그 다음 얘기는 쓰지 않았다. 정확하게 그 다음 행적을 알 수는 없다.

17.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누가가 사도행전의 후편도 기록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고 순교하기까지의 과정도 자세히 기록되었으면 좋았

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미완성인 채로 끝난 책이다. 달리 말한다면 아직도 계속하여 써야 하는 책이다. 누가 무엇에 대하여 계속 써야 할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디오스쿠로: 제우스의 아들들

삼관: *Three Taverns*, '세 채의 휴게소' 또는 '세 주막'. 아비온 광장의 근처 또는 광장 내에 있었고, 로마 남동쪽 50km 지점에 위치했다.

한뭇 나무: 한 아름의 나무